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抗日人民戰線目標 大同團結을企圖

日中交涉의決裂을豫期하고 中國共產黨서策謀

【南京二十八日發同盟】南京日中交涉의 決裂에依한 兩國의衝突을 豫期하고 中國共產黨外民主主義諸派左翼六個團體及 各種抗日團體는 右翼抗日戰線運動과 倂立하야 俄然한 左翼戰線一運動을 展開하엿는데 中國共產黨은 十月二十日 毛澤東의名義로 全國民主主義諸派及 抗日救國團體에 現下의 對日非常時局에 處할 中國共產黨及 共產軍의 意思를 表示하는外에 各種團體의 大同團結을 策하야 抗日戰線結成을 策하고 目下 香港、廣東、上海等各地方에잇서 各黨派團體首腦部는 共產黨代表와 會見하고 具體的折衝을 進行하고잇는事實이 判明되여 近近抗日人民統一戰線結成을보게될 形勢이다

共產軍北進開始 綏遠進入企圖

【天津二十八日發同盟】甘肅省會寧附近에잇서 徐海東共產軍七、八千은 十月初旬부터 北進을開始하야 朱德、賀龍、徐向前의全軍에 合流하야 綏遠、開原附近에 集結하고 一部는 이미二十日 黃海를 건너 對岸各地를攻擊하고잇다 結氷期를 압두고共產軍이 大擧渡河行動을 取한것은 熱河 五原 包頭로부터 綏遠에 進入하라는 模樣이라고觀測되다 一方 包頭에잇서 學生主體의 共產分子의 活躍은 活潑하게되여 同方面의 防共에關心을 拂하고잇는 日本軍當局은 共產軍勢力의 擴大를 嚴重警戒하고잇다

滿蒙會議第一回會議

【新京二十八日發同盟】二十六日로서 會議進行에 關한 豫備折衝을마친 滿蒙會議는 二十八日午前十時半부터 第一回本會議를開催하야 紛爭問題、國境劃定의兩委員會設置問題를 中心으로討議를 進行하고 午前十一時半散會하엿다 日에도 續行하야 諸事案을 解決할터이다

開原事件에嚴重抗議

【天津二十八日發同盟】開原來電에依하면 公安局員의 襲擊을바든 輸中公司田中氏는 去十月四日 山西高等法院巡警二、三十名이 同氏店內의品物을 掠奪으로搬出하고 立退를 要求하엿든바 이에 承服치안코 頑强히拒絶하여가기때문에 今回의襲擊을 밧게된것이다 同公司의 壓迫에 對하여는 太原의 日本當局은 嚴重抗議하엿엇다 合에도 不拘하고 今回의 暴行拉致事件을 惹起하엿슴으로 日本官憲은 極度로 憤慨하야 中國側에 嚴重抗議하엿다 그리고同地方의 對日感情은 最近에 갑작이 惡化하엿슴으로 邁藏에서는 奧地駐在員의 總引揚을命令하엿다

社說

朝鮮의工場法 制定問題

◇

最近朝鮮이 急速한 程度로 工業化하여감에 따라서 近代的工場이 만히 設置되고 따라서 產業勞働者가 大量으로 增加됨에따라 先進社會에서발서부터 實施하고잇는 工場法은 當然히 朝鮮에잇서서도制定實施 될것이 要望되엿섯다 그런데 總督府의社會課 保安課에서는 그實施의 必要를 認定하야 二三年來 그立案材料의調査를 着手하는것으로드럿드니 目前開催된 產業經濟調査委員會席上 產業資本家의 大部分이 工場法實施를 反對하야 當局에서도 이를 支持하야 工場法制定은 解消狀態에 直面케되엿다。工場法은 日本內地에 잇서서는 明治四十三年에 制定되여 明治四十四年三月二十八日法律 第四十六號로써 公布된것으로 그後工業의急激한 發展에依한 勞働者의 大量增加와 時代思潮의 進運에 따러서 數次部分的으로 改正되야 그細目을 規定한 工場法施行令及 工場法施行規則과함께實施되고잇는것이다。工場法은勿論 工業勞働者의 地位保護를 目的한 法規임은틀림업지마는 雇傭關係에서 發生하는 諸弊害를 除去하고 工場勞働者와工場主와의 自由契約에 制限을 設하는것도 目的이다、그럼으로 工場主와 勞働者의 利害에 對立이 아니라 그것은同時에 勞働者의 增加에 依한 一國產業의 進步를促進하는 必要한것이다。그러면 왜 一部의 產業資本家가 왜工場法制定을 反對하는가하면 主로日本內地의 資本이 最近朝鮮에 大量으로 流入되는原因은 勞働賃金의低廉 勞働時間其他의 劣惡等에依한 生產費의低下로因하야 利益이만흔까닭이엿는데 工場法이 實施되면(勿論그內容如何로 달으겟지만) 以上의有利한條件에 制限이잇게되기때문이다。以下工場法의 內容을摘記하면 理由는明白하여질것이다。

◇

工場法의 原則은 大體로左記十項으로되여잇다 即(一)工場法의 適用範圍(가)常時十人以上의 職工을 使用하는 工場(나)事業의 性質危險한工場 又는 衛生上 有害의 念慮가잇는工場(二)就業의 制限(가)保護職工(十六歲未滿의男女)(나)保護職工의 就業制限(一日十一時間以下일것、午後十時乃至 午前五時의 深夜業禁止、每月二回以上의休日、一日三十分 又는 一時間의 休憩時間、危險又는 有害作業의禁止)(三)設備의 取締(四)職工의扶助(가)扶助義務의發生(業務上의負傷、疾病、死亡)(나)扶助權利者(本人、遺族又는 本人死亡當時그 收入에依하야 生計를 維持하든者)(다)扶助의 種類及範圍(ㄱ)療養의 扶助料(ㄴ)休業扶助料、日給의 百分之六十但百八十日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百分之四十)(ㄷ)身體障害扶助料(程度에 따라야 五百四十日分以上 三百六十日分以上 百八十日分以上 四十日分以上의 區別이잇슴)(ㄹ)遺族扶助料(三百六十日分以上)(ㅁ)葬祭料(二十日分又는二十日分以上)(ㅂ)打切扶助料(五百四十日分以上)(五)雇人 解雇(ㄱ)職工名簿의備付(ㄴ)賃金의 支拂(每月一回以上通貨로써)(ㄷ)解雇의豫告와豫告手當(二週間分)(ㄹ)解雇의 境遇의 證明書請求權(雇傭期間、業務의 種類及賃金)(六)徒弟(七)監督(八)工場管理人(九)罰則(十)訴願及行政訴訟이다。그리고 工場法의 適用에 重大意義를 가진것은 保護職工의 深夜業禁止로써大正十五年改正工場法을 施行할때에도 三年間의 猶豫를두엇든것인데 昭和四年七月一日로서 實施케된것이다

(洪璟明)

治山治水를目標로 調査委員會開幕

廿九日大野總監統裁로

幾多生靈을 犧牲하고 家財를 流失하고 道路橋梁을 破壞하고 耕地를 荒廢하야 暴威를示하면서 半島를 揷襲한 今夏八月의 風水害에 鑑하야 轉禍爲福의治山、治水 根本對策樹立을 指目하고 南總督就任 最初의 提唱으로 設立된 朝鮮治水調査委員會는 今二十九日 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會되엿다

委員長 大野政務總監을 비롯하야 日本內地로부터 工學博士 中川吉造 林學博士 白澤保美兩氏以下 加藤鮮銀 賀田商議會頭 朴榮喆商銀會頭 朴(相)南兩中樞院參議、久保田長津江水電專務 四元咸北 多田平北 福島平南 張黃海 坂田慶南 中谷慶北 黑任全南、片桐全北 上池忠南 韓京畿 各道議員及 吉田鐵道、山田遞信、富永學務 穗積殖產、林財務、矢島農林、大竹內務各局長等 各委員(有賀殖銀頭取、三橋警務局長缺席)與東總督府土木課長以下 幹事十名이 出席하야 爲先 劈頭에 總督의 演示(政務總監代理)가잇고

治山治水施設은 歷代首腦者의 傑心한 重要事案으로 財政이 許하는限 最善의 努力을 하되 過般災禍에 鑑하야 從來의缺을 補하고 幾多의 角度에서 將來의 對策을樹立할 官의 調査會設置의 使命을 强調한다음 大野委員長으로부터 人事가잇고 即時議事에 入하야 諮問答申案 檢討를 行하야

一、治山治水에 關한 具體的方策
二、治山에 關한 實際的方策
三、其他水害豫防에必要한方策

에對하야 各委員으로부터 有力한 意見陳述이잇고 半島現狀에 即한 治山治水의 恒久方策確立에對하야 討議가열리엇는데 本會議는 水禍、防止뿐만아니라 河川改修 水力發電 水利開發水運의 促進其他各般事業에도 至大한 關係를 及할것이라고 注目되여잇다 그리고會議는 明三十日에도 續開된다

大觀艦式御親閱

【神戶電話同盟】海國日本의 威容을 자랑하는 昭和新政、第五回 特別大演習觀艦式은 二十九日 阪神一帶 和泉灘에서擧行되엿는데 艦艇百有八隻 空軍數百의 精銳가 參加하야 海軍創始以來 最初의航行式에依한 未曾有의豪壯華麗한 光景이 展開되엇다 御召艦榛名에 御搭乘하는 御旗를 仰하고 浮城全艦隊의意氣는 一層昂揚되고 拜觀하는 民衆도 오직 感激할뿐이엿다 昔日觀艦의 盛觀을 拜觀하려고 遠近으로 몰려든이 二百萬、御召艦 御發航時부터 浮城百八隻은 次第로 行動을 開始하야 世界에 자랑하는 大觀艦式의 盛儀가 開始되엿다

大元帥 陛下께압서는 海軍 御軍裝에 略綬를 御佩用하압시고 午前 七時三十分 御召艦 御座所에서 御陪觀하압시는 高松宮殿下를 奉始하와 閑院參謀總長宮殿下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 其他皇族殿下께 御對面하압신다음 永野海相 藤山吳鎭守府司令長官 稻垣比叡艦長外 陪觀의 勅任官以上 安井大阪 湯田兵庫兩府縣知事 坂間大阪 勝田神戶兩市長及 東京駐劄外國大公使及武官에게 各其賜謁하압시고 御召艦은 榛名노피 燦然히 빗나는 天皇旗를 翩揚하면서 同八時五分 浮城艦隊와 나란히 比叡、足柄 등을 從하야 外로 御發航 鳥海를 御先導로 愛宕、足柄이 供奉 時速八노트로 御親閱式場에 向하압시엿다

陛下께압서는 同八時三十五分 前艦橋의玉座에 出御하시사 艦隊의北上을 待御하압시엿다

이에압서 全艦隊는 高橋觀兵式指揮官의 命令一下에 午前八時 一齊히 拔錨 聯合艦隊는 旗艦長門을 先頭로 東側 第四艦隊는 旗艦陸奧를 先頭로 西側을 航進 十三浬里에 達하는 二大縱陣을 作하야 堂堂히 海波를 깨트리면서 時速十二노트로 大阪灣中央을 北上 全艦隊의 先頭長門은 淡路 假屋沖에서 御召艦과 갈리는 時는 八時五十分 長門 즉 그時正 觀艦式을 行하고 二十一發의 皇禮砲를 發射하고 다음에 扶桑 榛名 霧島各艦도 이에따라 各艦은 御召艦에 接近할時에 一齊히 皇禮砲를 發射하고 君代 萬歲를 唱和 砲聲은 海를 壓하고 殷殷히 大阪灣上을 뒤흔드는데 御召艦은 兩縱陣中央을 南下 陛下께압서는 這間에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 刻刻으로 御奏上하압시는 參列艦長及 司令以上의 指揮官의 官氏名 其他를 御聽取하압시면서 御親閱 이리하야 右縱陣의潛水戰隊 左縱陣의 航空戰隊를 最後로 航進觀艦式을 五十分間에 終了하압시고 御召艦은 約二十三杆南下 午前九時 四十五分 되도라 北上하엿다

空中大分列式

이에 압서 演習에 參加한 航空機數百은 各假根據地를 出發하야 第一航空戰隊司令官 佐藤少將指揮下에 一旦 淡路北端上空으로부터 明石上空에 亘하야 航進觀艦式이 바야흐로 終了하려는 九時三十分 洲本上空에서 一大編隊를 지여 銀翼을連하고 悠悠히 北飛 高度約五百米로 航過 御召艦西側二百米上空을 順次機首를 下하야 御親閱을仰하고 碇泊式場上空을 너머 西宮上空에 至하야 解散하고 各其基地로 還하엿는데 這間에 拜觀하는 三十四艘에 分乘한 拜觀者의感激은 極度에 達하엿다

碇泊陣形御親閱

觀艦式 航進의 御親閱을 受한 全艦隊는 式後即時 西宮灣地에 入하야 聯合艦隊는 東側에 長門을 先頭로 特許拜觀船을 加入하야 入列 第四艦隊는 陸奧를 先頭에 西側七列의 橫陣을 布하고 待御하실때 되도라 北上한 御召艦은 艦隊의 背後에서 東西第一列의 中間을 御通過 全艦隊로부터 一齊히 發射하는 皇禮砲裡에 陛下께압서는 碇泊中의 全艦隊의 陣容을 御親閱 御召艦은 江沖 一圓의 所定碇泊地에 進航 陛下入御 이에 碇泊觀艦式을 終了하압시고 御召艦은 艦首를 西로 向하야 投錨하엿다 때는 바로 十一時、이리하야 御召艦 投錨가 終了되매 高橋聯合艦隊司令長官 加藤第二、鹽澤第四各艦隊司令長官을 爲始하야 各司令長官、司令官及 統監部員等 御陪餐參列官은 榛名艦內火艇으로 御召艦에 參集 午前十一時三十分 陛下께압서는 艦內御座所에서 勅任官及 司令官이 海軍大佐에게 賜謁하압시고 同四十分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의 先導로 永野海相을 거나리시압고 上甲板 御講評場에 出御 今回大演習에對한 御講評을 行하압신 다음 優渥하신 勅語를 下賜하압시고 諸員嚴肅敬禮에 入御하압시엿다

六艦上서賜饌

午後零時二十五分 賜饌하압시기爲하와 高松宮殿下를奉始하야 東久邇宮 伏見宮 久邇宮各殿下를 鳥海 愛宕 足柄 加賀 陸奧에 各其御差遣하압시엿다 御召艦에서는 鈴木侍從長의 御召의光榮에浴한 廣田首相 以下 各國務大臣 大角海相 高橋觀艦式指揮官 藤田吳鎭守府司令長官 稻垣比叡艦長以下 約五百名이 賜饌場에서 起立奉迎하는 中에 陛下께압서는 後甲板玉座에 着御 一同에게 賜饌하압시고 入御하압시엿는데 各艦에서도 午後零時五十分頃부터 各其賜饌이 게시고 이에 大觀艦式은 全部終了 午後二時十分 各皇族殿下께압서 御退艦하압시매 이에뒤이어 陪觀諸員도 退艦하엿다

御召艦은 午後二時四十分 在港各艦의 皇禮砲裡에 供奉하는 驅逐艦 時雨 白露를 거나리압시고 一路 橫須賀에 向하야 御發航하압섯다

明治節의 總督府式典

十一月三日의 明治節에 總督府에서는 午前十時부터 南總督이 各國領事團及 外國人의祝賀를 밧고 同十時二十分부터 勅任官同待遇者以上及朝鮮貴族의 御眞影奉拜가잇슬터이다

叛軍機械化部隊 마드리드府로進軍

破竹의勢로猛進、政府軍苦戰

土人部隊先頭에세워

【이리에스카叛軍戰線에서二十八日發同盟】바래라將軍麾下의叛軍機械化部隊는 二十七日午後强行軍에依하야 토레도北方十粁地點에到達하엿다 同部隊는 七十五미리 輕砲機關銃을비롯하야 多數의精銳武器를 整備하고 破竹의勢로 一路마드리드로進軍中이다 北方戰線에잇서서는 라그사政府軍과의 間에 猛烈한 戰鬪를 展開하엿다 政府軍은 大砲가 업기때문에 苦戰에 陷하야 에스코알로 後退하고 叛軍 騎兵隊는 이를 追擊中이다 이리하야 에스코알의 陷落은 目睫間에 迫到되엿는바 同地의 陷落으로 다와다라마方面의 政府軍은 마드리드와의 後方 連絡이 斷絶되엿스므로 同地를 抛棄하고 退却할수밧게업는 模樣이다

叛軍爆擊機는 盛히 首都威嚇飛行을 試하야 機關銃掃射를 보내고잇는데 叛軍總帥 프랑코將軍이 마드리드入城의 最後的決戰으로 移行할것은 不遠實現케 되리라한다 프랑코將軍은 마드리드入城에 際하여는 特히 土人軍을 先頭에 세워 左翼主義者와 叛軍兵士와의 骨肉相食하는 慘狀을 防止할 意向이라고 觀測된다

地方行政改革의 內務省原案

五相會議에提出豫定

【東京電話同盟】地方行政機構改革에對하여는 來月四日午後二時부터 內相官邸에 潮、林、小川、島田、永田、五相을 擴任委員으로한 第一次會議를開하고 本格的審議를 開始할터인데 地方行政機構改革은 中央行政機構改革에 比하야 國民生活에 及하는 影響이 緊密하기때문에 內務省에서는 陸軍의 態度로써 觀望、調査硏究를 進捗하고잇는데 潮內相이 本月下旬에 歸京함을기다려 五閣議式觀次 西下한 內務當局의 地方行政機構改革具體案의 審議를 行할터이다 內務當局이 企圖하는 改革案의 內容은 大要 左와如하다

一、特別市制의制定
都市行政의 劃一化를打破하고 重要都市에 特別都市行政을 施行함 (例하면 六大都市에 特別市制의制定과如한)

一、地方廳의 機構刷新
現行總務 經濟 警察 學務四部制의 劃一的體制를打破하나

一、保護行政機構의擴充
가、中央에 잇서 保健行政機構의 擴充에 伴하야 地方廳衛生局을 擴大强化하고 衛生局의 現在의 衛生局을 擴充하고 文部省의 學校衛生及 一般體育行政農林省所管의 國民保健에 關한 保健을 包含한 保健局을 設置하야 內務省의外局으로함

一、人事刷新
地方行政官及 地方技術官의人事行政이 內務省 中心主義이엿든것을 農林 文部 商工 拓務關係各省에 交叉로하야 適材適所主義를圖하고 綜合的人事行政을行함

一、市町村行政改善
各種團體의 事務煩雜을 整備하는 同時에 產業方面의 指導에 全力을 傾注하고 地方自治體의 强化를圖하는 同時에 地方行政의 全面的改革에 依한 交付金制度의 確立에伴하야 徵收事務의 適正을 期하기爲하야 徹底的改善刷新을圖함

政黨政治그것을 根本的으로否認

陸軍의議會制度에對한見解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廣田首相에게 提示한 行政機構改革意見書에잇서 中央制度의改正에 伴하는 地方制度의改革 世運의 進展에 應하야 議會制度의 改革을 强調한 以來 關係方面에 多大한 衝擊을 與하고 陸軍이 如何한 具體案을 가지고 잇는냐 各方面의 關心의的이되여잇는데 陸軍으로서는 爲先中央行政機構의 改革을 先決問題로하고 其改革의 核心이되는 國策綜合企劃機關의 內閣設置를 絶對必要로하야 政府에 右實現을 希望하고잇다 그러나 政府가 中央制度뿐이아니라 地方行政機構의 改革도 倂行할 方針下에 具體的解決案을 어드려하는데 對하여는 敢히反對하지안는다는 態度를 取하고 其具體案硏究에 着手하야 成果를 엇기에 努力하고 잇다 그리고 議會制度改革에 關하여도 陸軍部內는 此際 憲法의 眞精神에 則하야 徹底的으로 再檢討를 加하야 其改革을 斷行하라는 同時에 陸軍의 政黨에 對한態度見解까지도闡明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다 即 其大要는 大體로 左와如한것으로 近近具體的形態로 出現되리라고 觀測된다.

◆議會制度改革 立法機關으로서의 眞價를 發揮케하는 同時에 議會는 天皇과 對立하는 機關視及 이에害를 밧고잇는 政黨精神을 徹底的으로 淸算排擊하야 立法府와 行政府와의 區分을 明確히 하기爲하야 새로議員을 辭치안코는 行政府에 參劃함을 不得하는 原則을 確立하야 議員되는者는 官吏 又는 國務大臣됨을 不得하게함이나、所謂 憲政常道의 實踐은勿論 多數黨이、政權을 掌握하는 形式을 廢止하고 即時 政黨은 어데까지 立法府內에서 其機能을 發揮하고 行政府에 參劃함을 不得하게함

◆選擧法을 改正하야 選擧肅正을 徹底的으로 行함

大體 右와 如히 政黨政治를根本的으로、否認하는것을 骨子로하는것으로 其結果 政黨은 全然 政權으로부터 分離하게되고 議會의 機能은 어데까지 이를 尊重하야 憲法에 抵觸하지안토록 根本的改革을 企圖한것인바 이것이 具體的으로 政黨에 爆彈을 投하게될것이다 그리고 陸軍部內에 政黨에 對한 見解를 率直히 披瀝하야 國家의公黨으로 政黨의 眞正한 更生에 貢獻할것이라는 見解가 有力한것은 議會制度의 改革態度와함께 頗히 注目된다

遞信分掌局長會議

遞信局에서는 京城、釜山、平壤及元山의 各遞信分掌局長을招集하고 來月五、六兩日 午前十時부터 同局分館會議室에서 事務打合會議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其日程은 左와如하다

五日 總督訓示 遞信局長訓示 各遞信分掌局管內狀況報告
六日 協議事項附議

八面鋒

◇行政改革案樹立의 實現이不可能한境遇에는 廣田內閣이總辭職을 할는지도모른다고。

◇辭職할決意라면 不可能할일이잇슬가、어름어름지나랴는데서 難關이생기는것。

◇國防充實이 人類의平和政策을 遂行하는根本이라고 米大統領이말햇다。

◇아무도、政治家라는種族間에는 平和라는 面紗布를 쓰고다니는것이禮節인모양。

◇所謂不承認政策을 부시고獨逸이 호올로에티오피아 의合倂을 承認하겟다는氣勢。

◇英佛은、그래도 躊躇하는의 決定을기다리어 善隣하겟다든가、베르사이유의女神이 제기할노릇。

本社參觀

▲永生高普籃球團十二名 白慶行氏引率下 本社見學

人事·集會

▲有賀殖銀頭取 母堂긴요刀自는 病으로 靜養中이든바 廿九日 午前五時卅五分 長野縣上伊那郡南箕輪村南殿四九六五番地에서 死去、享年八十八、葬儀는 未定、그리고 有賀頭取는 目下 同地에 歸省中이다

▲方應謨氏(本社社長) 平壤에旅行中二十九日 午前七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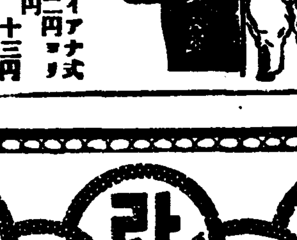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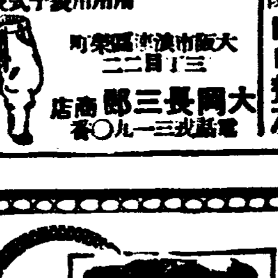
破格品提供 線メリヤス 加工品雜貨 新興業後援 毛メリヤス 今井商店 大阪東區安土町四丁目

圍碁 山口賛石 五段 大阪天王寺

皮服 自動車用 手袋 皮帽 大岡長三郎商店 大阪市浪速區

空氣銃 特賣 無稅證明書付 弘文堂銃砲製作所 大阪市東成區





ナイト印 ワイシャツ カラー 柳田シヤツ製造所 大阪

注文取並ニ取次店募集 東洋精版印刷 大阪市天王寺區

蓄音器 製作 卸 コレード 小林蓄音器 大阪市東區

羅紗製品 青年團服 作業服 コール天服 吉田由商店 大阪市東區谷町

ポマード香油 ミツマ 頭髮の整美には

感氣解熱特効藥 實效散

感氣는예전부터 治療에怠慢하야 餘病이생겨오래 감이普通이다 副作用이업는 實效散으로즉시 곳처야함을 잇지말나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有名藥店에잇다

痔疾專門 回春堂醫院 京城府惠化町一〇九ノ一

마라손王 孫選手 레코-드를通하야 優勝의感激을말한 近日發賣

不朽의名盤 優勝의感激(A) 孫基禎吹込 마라손制覇歌(B) 蔡奎燁吹込 一枚一圓五十錢 콜럼비아레코-드

朝鮮唯一의週刊新聞 半島言論界의解剖刀! 週刊 中央時報 本紙는月刊으로부터 出發하야드디어週刊에이르기까지에 七個星霜이라는 長久無數한難關을突破하면서今日에야鞏固한基礎를잡게되엇다 이제부터本紙는十萬圓株式會社라는經濟的土臺우에서二千萬民衆에게 소리치려는것이다! 支局募集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週刊中央時報社

團成社 十月二十八日부터三日間 將來의世界 雷鳴 高原의秋 勿忘의노래 뛰는幽靈中篇

新富座 아리소나怪盜列車 花の春遠山櫻

强盜의暗影에떠는 恐怖街·西部京城

昨夜西署側近인橋南町에 又復三人團食刀强盜

미해결인 봉래정(蓬萊町)살인강도와 서소문정(西小門町)이인단 강도의두건이 모다미궁으로 드러가자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전서가들어범인체포에 노력하는일방 방범복선공작(防犯伏線工作)으로 작지에보도한것과 가튼여러가지 보강책(補强策)을강구하고잇슴에도 불구하고 경찰의이활동을 비웃는듯이 이십팔일오후열시십오분쯤에 동경찰서에서 상거미들도 못되는지점에 또다시 삼인단의 식도강도가출현하야 우근(羽根)신서장이 착임하야 일주일도 못되는동서에 또한개의 푸란적사건을 던진세음이다 이로인하야 서소문정사건을 마지막으로서부의 치안도 확보되는것이라고미덧든 서부일대는 또다시심각한 초공포를바더 이일대주민들은 다시금공포에 떨고잇다 (사진은 강도가침입한 교남정우육상점)

男女六名을結縛 食刀로悠悠脅迫

現金百四十圓과金佩物을奪去 歸家한主人이發見

이십팔일 오후열시십오분쯤에 부내교남정(橋南町)십팔번지 우육판매상(牛肉販賣商)을하는 리유신(李有申)의집에 삼인조의 강도가침입하얏다 두명은대문근처에서 망을보고 한명이안방에 침입하야 주인은외출중임으로 그방에서자고잇든 주인의 처김씨(金氏)와 장녀 규숙(奎淑)을 식도로 위협하며 삼바(麻繩)로 결박한후 이불을씨우고 벽장속에잇든돈과 김씨의소지금을 합하야 일백사십원과 순금비녀(六匁)한개 순금반지(二匁)한개와 십팔금팔뚝시계 한개를 훔처가지고 『소리를질으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나갓다 조곰잇다가 행랑방에잇든 리점산(李點山)이하남녀 네명을다리고 다시안방으로 드러와서 이들역시 삼바로결박한후이불을씨우고 도망하엿다 이런일이잇슨후 약십분후에 가개에잇든주인이 도라와서 이광경을목도하고 곳서대문서에 보고하여왓다 동서에서는 시각을 옴기지안코 전서원을 비상소집하야 철통가튼비상선을 늘리고 범인을협안수사중이나 이십구일 오후까지 별소득이업섯다

遺棄品으로 麻繩과食刀

警察은指紋을調査

별항강도사건의 유류품으로는 범행에 사용한 삼바와범인이 머리를 싸매엿든 붉근『타올』한개 현장 부근에서 발견한 범인의 소지하엿든물품이라고인정되는식도한개가 발견되엿는데 이상 세가지물건은 전부 신품이라고 하며 식도는 경기도경찰부 감식과에서 방금지문적출에고심하는중이다

금번사건이 그수법에잇서서 서소문정이인단강도사건과 흡사한점이 만흐며 범인이피해자의가정사정을 잘알고잇다는점으로 피해자김씨의 말을 들어도알수잇다

『잔소리말고 돈을내노아』 被害者金氏談

처음에 주인이 어듸갓느냐고뭇기에 시골갓다고하엿드니 『이년아내가가게에잇는것을 보앗는데 웨거짓말이야 잔소리말고 돈을내노아라』하며 얼골을보지못하게 머리를눌으며 호주머니에서 삼바를꺼내서 결박을짓고 위선 돈을빼아슨다음 제머리에 꼬잣든금비녀와 왼손에 겻든 금반지를 빼앗고머리마테잇든 금시계를 집은후에 도망간것입니다

市內各署緊張 一齊히猛活動

별항강도사건의 발생을 소관서대문서의 수배에의하야 알게된 시내각서에서는 그발생이빈번하니만치 아연긴장하야 형사대를 비상소집하야 현장을검증케함은물론 각파출소에 고동보하야 비상경계망을늘리고 하로밤을새엿스나 대담한 그들의종적은 묘연하다

시내동대문서형사대는 사건발생후 한시간도지나 현장에급행하야 자세한검증을한결과 피해자의집 쓰레기통안에 던저잇는 범인들의 두전목 조희봉지 칠사술 식도등의 증거품을 발견하엿는데 이것은 장차이사건해결의 열쇠가될 유력한증거물이될것으로보인다

海州邑强盜 指名手配中

前科一犯인京學

지난 구월이십일 오전네시에 황해도해주읍영정(海州邑榮町)허석조(許錫祚)씨집에 침입한 강도는 그동안 해주경찰서에서 사방으로 수사하는중인데 요지음 황해도평산군 평산면 화산리(平山郡平山面花山里) 한모(韓某)의 둘재아들로 강도상인(强盜傷人) 절도(竊盜)전과일범 경학(京學)을 그유력한혐의자로 지명하야 이십팔일에 황해도경찰부장으로부터 조선각지로 「지명수배(指名手配)」를하엿다

少女失家

시경 시내종로통에서 공주(公州)에 본적을두고 앙큼뜰전에서 자긔고모집에 올라왓다는민 변연(閔然年)이라는 소녀가 집을엿코잇는것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방금그서에서 보호중이다

貨物車에轢死

이십팔일오후 령시오십분쯤에 인천부주안정(仁川府朱安町)김억원(金億元)의 술집 배달부 한면택(韓冕澤)은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주안정 이백십오번지 압큰길에서 경기도 안성군이죽면죽산리(安城郡二竹面竹山里) 자동차운전수리호근(李虎根)의운전해가든 화물자동차에 바치여서 외편팔과다리에 뼈가부러지고 전신수개처에 만흔상처를입어서 인천도립병원으로 데려다가치료를시켯스나 원낙중상이엿기때문에 그날오후 아홉시오십오분에 드듸여 죽어버렷다 가해자운전수는 인천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流行"하이킹"에도 번쩍이는警察眼

草木折取와風紀紊亂을團束 京城近郊中心으로

요지음 『하이킹열』이 왕성하야 일요일이나 제일에는 경성부내의각공원에는 물론 북한산(北漢山) 소요산(逍遙山) 관악산(冠岳山)등 근교의깨긋한 산악에 남녀동반혹은 우인작당으로 『하이킹』을하러가는 사람들이 무척만흔터인데 그들의『하이킹』군들은 고이고이 각구어논 화초와수목을함부로 꺽거서 가지고가는일도잇고 남녀동반자들가운데는 숲속에드러가서 수목을꺽거제치고 남이보지안토록자리를 정하고 아름답지못한 짓을하는이도 각금 잇스므로 경기도경찰부에서는 경기도 산림과(山林課)와 협의하야 이들 『하이킹』군들을 엄중히 취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십팔일에 관할각경찰서에 통첩하엿는데 『하이킹』군이 만히 가는산악과 공원에는 경관수명식을 배치하야 발견되는대로 단연히 처분하기로 되엿다한다

運動競技

晩秋籠球界의빅께임 延專對普專戰

明三十日靑年會後庭

晩秋우리籠球界의빅께임으로 緊張과興奮속에展開될 普專對延專의籠球爭霸戰은 이옥고明卅日午後四時부터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後庭에서 열리게되엿다 籠球界으로서는 機會를노치지못할 此一戰의人氣는 絶頂에達하야잇다 果然 普專이雪辱하야 往年의黃金時代를 再現할것인가? 延專이 連霸하야 籠球王國을지킬것인가? 母校의名譽를걸머진 陣營은 버르든勇氣와妙技를 가진 (一般部, 學生部) 現役이다

金、柳兩君 올림픽代表와對戰

全日本陸上選手權大會參加 올림픽出場選手歡迎競技會는 三十一日과 十一月一日兩日間에亘하야 東京神宮競技場에서擧行케되는바 朝鮮에서 出場할 選手는 金裕澤君이 百米와二百米에서 올림픽代表選手인佐佐木、谷口、矢澤、鈴木、川戶等과對戰케되엿스며 柳長春君은 五千米와一萬米에 올림픽代表 村社選手와對戰을하게되여 其成果는 자못注目을 이끌고잇다

實業庭球 十一月三日에開催

朝鮮軟式庭球聯盟에서는 明治節을期하야 京城實業庭球大會를 다음과가튼規定에依하야 開催하기로 되엿다

◀日時=十一月三日午前十時 ◀場所=京城運動場코-트 ◀申込期日=十月末日限 ◀申込場所=殖産銀行內聯盟 ◀出場資格=伊勢神宮庭球大會出場者及 今年度朝鮮神宮競技一般男子選手權大會優勝者와 準決勝에出場한 選手(但以上選手以外라도 同聯盟에서 出場을不許하는事도有함)

關北의球豪 永生高普入京

來卅一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는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 籠球選手權大會에出場할 關北의强豪 咸興永生高普一行十三名은 同校敎諭 白樂行氏引率아래 二十九日入京 武橋町八五番地 松屋旅館에 投宿하엿는데 一行은 廿九日午前中에 本社를訪問하엿다

都市對抗野球大會

大每西部總局主催의 第二回都市對抗野球大會는 來卅一日과十一月一、二、三日의 四日間 福岡縣小倉球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出場團은 全大邱、全大阪、德島鐵道、全京成、廣島鐵道局、門鐵小倉工廠、下關鐵道局、門司鐵道局等의 十個團이 選拔되엿다한다

朝鮮排球代表出征

日本排球協會主催의 全日本排球選手權大會 一般部에 出場하는 朝鮮代表 鐵道局팀一行十二名은 昨二十八日午後三時十五分 釜山發列車로 寶島監督引率下에 出征하엿다

劍道試合

京城帝大對九州帝大劍道定期戰은 十一月三日午後二時부터 京城帝大道場에서 開催케되엿다한다

早慶野球戰

興奮과傳統의 早慶野球戰은 來三十一日과十一月一日의兩日間 東京神宮球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悲戀의看護婦 愛人의故鄕에

但、旅費는京城府費로

경북영천군 금호면 냉천리(永川郡琴湖面冷泉里)륙백구십이번지 리시경(李時敬)씨의맛딸로 태여나 작년사월 시내수은정(授恩町)전일당병원(全一堂病院)에서 간호부로잇는동안 청년의사와 사랑을속삭이든 남어지 지난구월이십오일 대학병원에서옥동자를 나엇스나 퇴원하여보니 사랑하는 사람은간곳이업서 거리에서방황하다못해 동대문서에울며구조를 청한영숙(英淑)이의가련한 사랑은 이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동대문서에서는 그사정이하도 가련하야 백방으로 구조책을 생각한결과 이십팔일 경성부사회과(府社會課)로부터 려비를어더 그애인인 신천제(申鉱濟)의 본적지평북정주군 갈산면 예도리(定州郡葛山面禮島里)삼백십칠번지로떠나게하엿다니 본처까지잇는그의고향산천이 비련에우는 이간호부를 과연반가히마저줄것인가아니할것인가는 저윽히의문이다

식집온지三日만에 前妻딸다리고避身

奸惡한게집으로홀아비悲歎

호라비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일껀 재취장가를 든것이 불행하게도 새안해를 마저드린지 사흘이 다못되서 오직하나인 보옥처럼 애끼든 전처소생딸까지 데리고 방종에다 려나고 말엇기때문에 비애에 잠겨 울고잇는 그아버지가잇다

이십구일 아침 부터 종산서에는 눈물에 저즌 한떨의 수색원이 드러왓는데 이것이 말하는대로 보면 눈물의 주인공은 도화정(桃花町)산(山)구번지의 백취선호 홍건표(洪建杓) 수색의 대상이 되사람은 홍씨의 외딸로 돌이 되랴말락한 성자(性子)와 그의 후취안해인 김씨(金氏)로 작년봄에 안해를일코 호라비 살림으로 우울하게그러나 어린딸의 고물고물 자라가는것에 유일한 락을 부치고 살어오든중 지난시월입에 우연히 전자부터 알뭉이잇는 가튼동리 예사는 어면로파의 중매로 마장정(馬場町)에 산다는 파부김씨와 인연을맷고 … 그리하여 뜨내기안해를 일흔것은 별문제로 하고 … 식을 잇고 사방으로 차저다니다가 김씨의 오라범되는 황금정(黃金町)오정목 조선운회사(朝鮮陸運會社)운전수김창식(金昌植)을 차저가서 자긔누이의 간곳을 물으면서 몹시조르고 알엇지만 말을 이리저리 몰리고 알려주지안키때문에 분한마음을 금치안키 가슴을 부등켜안고 마침내경찰에 차저주기를 애걸하는것이라한다

古市町에老屍

이십구일 아침 여덟시경 본정서원이 관내고시정(古市町)사십삼번지정옥려관(井屋旅館)뒷골목에 약오십세가량되여보이는 조선사람거지의 시체가잇는것을 발견하고 검시한결과 뇌출혈(腦出血)로죽은것으로 판명되엿다 시체는 부청에인도하엿다

看守贈賄嫌疑 三名은昨夜에釋放

귀보=서대문형무소 간수독직사건의 주범고시현(高時賢)을 취조중에 새로운사실이 튀여나와서 시내무교정에사는 부호로 모사건의관계자 백모의안해 조종희(趙鍾熙)와 전과 백모의처남 조성탁(趙誠卓)등 수명이 또다시 검거되여서 취조를 밧고잇섯는데 그취조의결과 사건내용이 별로업는모양으로 이십팔일밤에 안해와 그의처남등 백씨의관계자세명등이 모다무사히 석방되엿다

市內에서大規模로 一圓紙幣를僞造

全朝鮮과滿洲各地에서行使

최근 시내에는 일정한 주소가 업는 전과이범 정유문(全有文)이 수령으로한대규모의 지폐(紙幣)위조단이 잠재하고잇는데 이들은 금년 이월경부터 시내어떤도만후 녀자에게서 현금 일천여원을 편취하여가지고 이것을 자금으로 인쇄기계를 준비하여서 조선은행권 일원지폐를 만히만들어서 이를조선내는 물론 멀리 만주국에까지 그들의 부하를 파견하야 마음대로 사용하고잇다는것을 시내경찰이탐지하고 방금 그들의소굴을 극력엄탐중이다

休校中의淸南學校 廿八日부터開校

四個條件附로써處分을解除 學生敎員九名犧牲

【淸州】그동안××문제로 지난 십이일부터 휴교처분을당한 기독교장로교회의 경영인 청주읍 사립청남학교(淸南學校)사건은 지난이십칠일 즉 십육일만에 휴교처분의해제를바덧는데 학생칠명은퇴학처분하고 동교교원이명은 면직하야 이사건에구명의히생자를 내엇다 그리고 장래를경계하는 사개조항의 조건부로 이십팔일부터 개교키로되엿다고한다 이로써 분규를이르킨 청남학교의××문제는 일단락을고하게되엿다

後素會一回展

卅日부터五日間

조선미술계의 권위자 김이당(金以堂)허의제(許毅齋)변소정(卞小亭)등 세화가의 지지미레 결합한 후소회(後素會)동인들은 그들의려작공품을모아서 오는삼십일부터 닷새동안 부내태평통조선실업구락부(朝鮮實業俱樂部)회관에서 제일회전람회를 개최하리라한다 삼십일 삼십일일 량일동안은 직접에서 휘호(揮毫)도하리라한다

儒林에檢擧旋風 十餘巨頭를押來

全南警察部의指揮로

【光州】전남경찰부에서는 금월초순에 돌연구례군 토지면문수리(求禮郡土旨面文殊里) 사는유림(儒林)간부 안효봉(安曉峰)을 검거하야 광주서(光州署)에 유치하고 이여 보성(寶城)경찰부고등과 특고주임문경부 당임으로 엄중 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여 자세히는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모종의부정사건이 잇지나 안한가한다

醫師試驗合格者 朝鮮人이卅五名

지난시월에 시행한의사시험제일부(醫師試驗第一部)시험 합격자발표가 이십팔일에 잇섯는데 전과목합격자 사십팔명중 조선인이삼십오명으로서 그씨명은다음과갓다

金鍾烈 趙炳國 承鼎均 李元揮 金庚麟 禹昇龍 盧炳오 朴勝權 石鎭慶 尹鳳熙 郭鍾富 韓在龍 李載浣 金興烈 梁海弼 李華泳 閔承植 尹汝喆 李景哉 南昌眞 全撤路 梅崔王男 朴斗正 申載鎬 李大均 韓任述 金埰燮 李逢春 鄭萬謙 洪榮植 金仁德 金賢瑞 金泳植 洪永默 朴利壽 以上

遞信分掌局長會議

체신국에서는 경성 부산 평양 원산의 각체신분장국장을 소집하야 오는삼십일、삼십일일 량일동안 체신국분관회의실에서 『사무타합회의』(事務打合會議)를 개최하기로되엿다한다

看守正服한犯人 蹤跡은아직杳然

一週日間의徹夜活動도水泡 公州强盜事件後聞

【公州】지난이십삼일오전네시반에 충남공주읍 봉정요리집각옥(角屋)에 간수복장과 간수군도를가진 강도일명이 침입하야 잠자는 주인을 위협하고 금궤에잇는 현금 일백사십원과 금시계등속을 강탈하여가지고 그만 종적을 감추엇는바 당지 경찰은 각지로 수배하고 범인엄탐중이라함은 귀보한바어니와 전긔강도 범인은간수의 복장과군도를 당지산성정 모간수집에처입하야 절취한것으로 복장은대회에어는돈에 버서버리고 칼은그대로 가지고간것으로 당지경찰은 물론주야하고 범인을수색하는중이다 지난이십삼일에는 충남경찰부 형사대가 출동하야 원활동하엿스나 강도범은 이십팔일까지 만륙일 주야시간으로 일백사십시간 동안이다 혈안으로 활동하나 범인의종적은 더욱미궁에빠저 수사대는 피곤한몸을 겨려지못하야 허둥지둥한다고한다

總督府判任官蹶起 食堂改革을絶叫

料理는나쁘고價格만비싸서 決議文을作成陳情

총독부안에잇는 판임관들은 일치단결하야 총독부내의식당개혁에대하야 회계과장에게 결의문을제출하야 진정하게되엇다 즉 현재식당은 부회의위탁으로 사무국에서 경영하는데 전업(山田美一)씨가 위임경영을하고잇는데 가격에비하야 료리의분량이적고 불결하며 맛이업서 직원에게 불평제가되엿으나 사무국에서도 미치는바영향도 되엿다한다 이로써 단연 경영자를밧구어 상당한 새경영자에게맛겨달라고 금월간에 동부(藤本)회계과장에게 결의문을제출하고 진정하게 되엿다한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晴一時曇 明日도同上

昨日最高 一七度四
同 最低 一度七
今朝最低 三度八
今日正午 一四度一

百餘名共産軍 廿道溝를來襲

【安東縣】지난이십구일오후 구시반경 공산군김일성(金日成)부하약 백명이 장백현이십도구(長白縣二十道溝)=長白縣東北二十里=경찰서에 습래하여 경비전화를 단절하고 동지경찰서장숙사와 출사분소(緝私分所)와 아편령매소(阿片零賣所)등에 방화하고 식량의보급 일천오백원어치를 략탈하는동시에 만주인과 조선인십오명을 인질로납거하엿다한다 이급보를들은 장백현경찰에서는 비상소집으로 추격하엿스나 도망하여찻지못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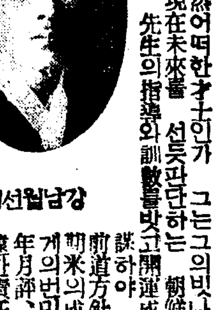
一錢千金의藥草 光活苗 分賣 (百本一圓)

흔히는 사람들이 『예수』교인의 생활을 외식한다 즉 말하자면 『예수』교인은 국민된 의무를 무시한다던지 사교에 물리해하다던지 하지만 그런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교훈이 잇섯고 신약에도 『예수』의 언행하신 가운데 그런례가 업셧스며 따라서 제자들의 기록한 서신에도 국민된 분을 다함이 마땅하다고 가르친것이다

朝鮮日報安岳支局 振替京城七二二五○番

여러분이잘아시는 동양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은 果然어떠한才士인가 그는그의빛나는무엇이 사람을대하는즉시 過去現在未來를 선듯판단하는 朝鮮이나혼 天才的觀相家이다 하로밤비 先生의指導와訓戒를받고開運成功과 幸福을事前에圖謀하야 前途方針과、適業指示며、金鑛米의成功如何、其他訴訟、就職、行年月評、人事百般모든問題에 永遠한責任으로親切詳論◆料金普通一圓◆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詳細◆相金과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 於無形하는先生의奇門遁甲으로詳細答送하오 寫眞添付尤好



생선월남강

京城府昌信町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越便公衆便所골목入 姜南月觀相所

副業또는本業에 千代田商本店 大阪市西區本田通 電話西七三九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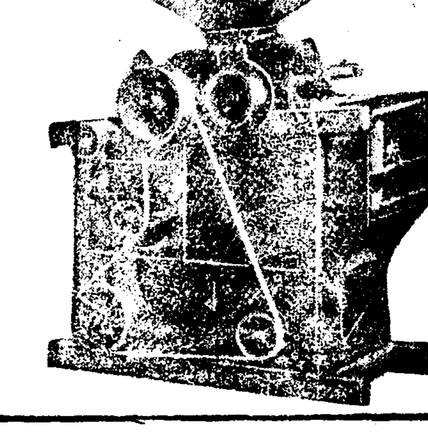
淋疾 葵苴五淋錠 朝鮮靈藥硏究所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桃花劇場

特約店募集



オリエンタル石油發動機朝鮮總代理店 横濱籾製造株式會社京城代理店 關谷農具製作所朝鮮總代理店

營業科目 型型 付動 箕自 唐伞 オリエンタル石油發動機 セキヤ式ロール籾摺機 金剛號精米機 稻扱機·製縄機 ヒカリ式深耕犂 各種農具

金剛商工社 京城府黃金町一丁目五番地 電話本局六三三九番 振替口座京城一七五一六番

昭和の常識

我國地震研究는世界的으로デシン파ツナミ는임이世界語이지만最近術語를統一하야海外에公布한다고

硝子製의병마개가나오지안흘때에는초에다가빼면조타硝子의主成分인硅酸소다가酸에녹는까닭

半煉の仁丹齒磨 美廿錢一鑵每に 仁丹의 十錢包를 全國各店에서꼭 進呈

懷中藥の小粒 仁丹

●大奉仕의趣旨

一、新原料의添加에依하야 効力倍增하야 참으로 先覺齒磨의 創始가되는 專賣特許「半煉の仁丹」을 꼭 全國各家庭에 빠짐이업시採用하기를 바란다。

一、一面赤小粒의「仁丹」이 特히多數의사람과 數萬의高貴藥에依한「常備必携劑」로서의重要性을 거듭認識하게하기爲하야 莫大의犧牲을 不顧하고此奉仕를斷行한다。

一、全國에 亘한各販賣店에 미리公告하야 準備한數量에限하야 全國共히實施되는同時에 [illegible]

只今! 仁丹의藥効가 事實使用될때

胃腸强化에 — 食慾이增進함에따라 至今이가장 胃腸障害가 多하다。그러므로食後에는 充分히整腸치안으면안된다。이때에 仁丹으로 드듸여 仁丹五粒을!

惡疫豫防에 — 惡疫이流行하는 이때에 病院出入其他로 무서운 傳染病에 仁丹五六粒을!

口臭와頭痛에 — 口臭는 自他에 不快를 주는것이다 仁丹만 있으면 出旅行에는 꼭 仁丹이 必要!

仁丹은新藥實의充實에依하야 只今은一層日常不可缺의要藥이되엿다

仁丹의新成分

兩호루몬 — 仁丹에는 가라나의 補精强壯의 효르몬의効果를 加한다

비타민 — 仁丹에는 비타민B를 包含하고 消化와 吸收의 調節을 하는 效果를 有한다

朝鮮人參 — 朝鮮人參의 特有한 效能을 有하게한다

사후랑 — 仁丹에는 사후랑을 包含하고 生活機能을 全身的으로 振作한다

●其他數種의高貴藥配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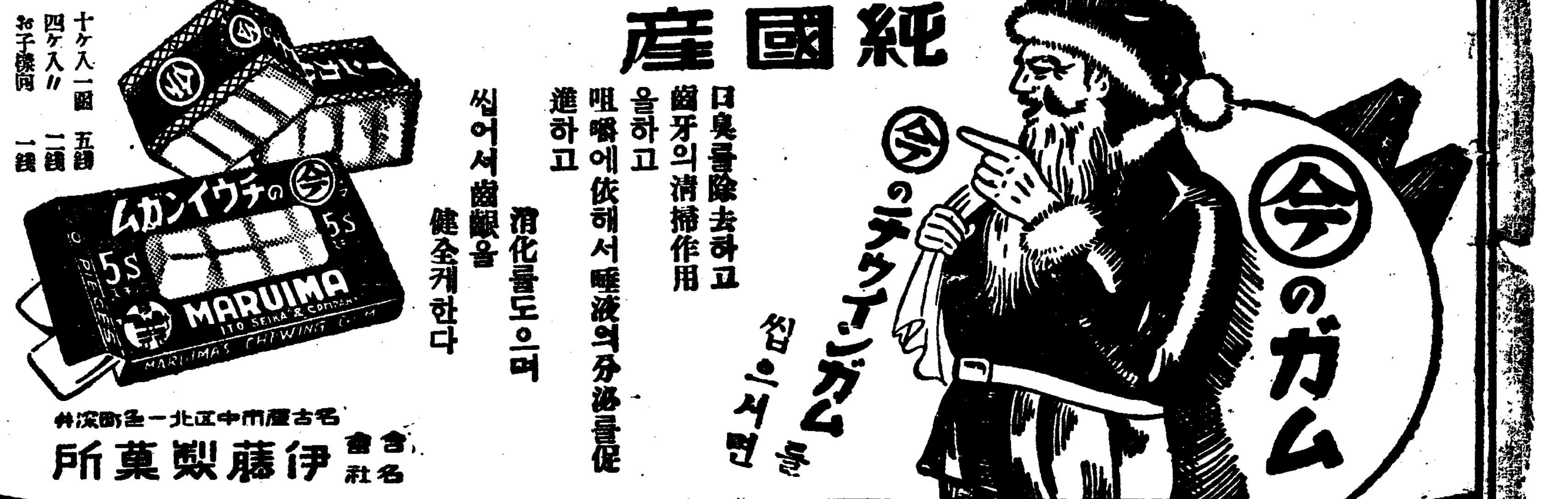
그리고 럭키抽籤券 壹枚式添付

抽籤後左記大景品進呈

大景品

一等　フランス人形 ハンドバック 萬年筆シャープペンシル組合 文化電氣スタンド 上の內お好みの一品……六百名
二等　仁丹洗顏セット……千五百名
三等　仁丹化粧圖案大瓶……三千名
四等　仁丹化粧圖案中瓶……一萬八千名
（又は三百萬本の割合）

抽籤發表　昭和十二年一月下旬、本紙上にて



今のガム

今のチウインガム를 씹으시면

純國產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健全케한다

十ケ入一個 五錢
四ケ入〃 二錢
お子様向 一錢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深井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Maruima kokusan gamu

生徒大募集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今ガ入學ノ絶好時期
◆練習車 練習場 完備朝鮮第一
◆絶對責任敎授 學費最低廉
◆就職無料紹介

（學則送呈 參觀歡迎）

場所　京城府若草町橋本フオード自動車販賣店內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主任警部　溝見良

朝鮮日報社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產防 調毒 サック

實に不思議な珍らしい品
◎感じよくて絶對安全◎
◎丈夫で破れぬ優品◎

(A)ラツキースキン	一打	¥ .50
	三打	¥ 1.20
(B)ナナースキン	一打	¥ .70
	三打	¥ 1.80
(C)アニマルスキン	一打	¥ .90
	三打	¥ 2.40
(D)コントラススキン	一打	¥ 1.20
	三打	¥ 3.20
(E)ダイヤスキン	一打	¥ 1.50
	三打	¥ 4.00
(F)フィツシュスキン	一枚	¥ .90
	五枚	¥ 4.20

註文は內金の註文者に限り取扱ひます 送料十錢要

【振替東京一一二七〇〇番】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岩澤製作部

賞國自發售品

月經

女性의美와健康을 지어내는卵胞호르몬

不順과寡少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國際標準品으로一位를占한結晶性製劑

オバホルモン은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重要한卵胞호르몬으로써、卵巢機能을活潑케하는活力衰衰된諸臟器의機能을賦活케하며、新陳代謝를놉히며、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식힌다。

女性神經衰弱、憂鬱症、月經痛初老期、「月經閉止年齡」의頭痛・心悸亢進・四肢冷感・視力減退

乳汁의分泌不足에도賞用된다。

錠劑(百單位)　三〇錠(一圓七〇)　一〇〇錠(三圓八〇)
發賣(五百單位)　一〇錠(一圓六〇)　三〇錠(三圓五〇)
(二千單位)　一〇錠(一圓六〇)　三五(三圓六〇)
注射液　百、三百、千、一萬、三萬單位あり。

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同　株式會社小西新兵衛商店　東京日本橋本町
製造元　株式會社帝國臟器製藥研究所　川崎市大島町

36—880(O)

ウテナ 花印 コールドクリーム
우데나 콜드크림

가을은……콜드의季節이다!

今秋의살결을防備함에는

날마다 날마다 짓터가는가을……이제부터는 살결이거칠기쉬운節季이다 朝夕으로 우데나콜드크림으로 當身의살결을 매만저주시오 如何한脂肪性의분이라도 아츰洗手와 就寢前맛싸ー지에 콜드를바를것을이저서는안된다 不過二三分間매만지는 手苦로 當身은 언제나뻰질하고 緊張하며젊고산뜻한살결을 가질수잇는것이다

淸掃·榮養·更生의三作用

우데나콜드크림은 이三作用을具備한 完全한콜드로서他의追從을不許한다 微粒子의完全乳化한 純粹크림임으로强力한性能을發揮하야 皮膚內外의汚物과不純物을 完全히淸掃함과同時에 크림의成分은 皮下에滲透皮脂를適度로調節하야 皮膚의新陳代謝의機能을旺盛케하고 또한살결에充分한榮養을주어 단번에훨신緊張된 潑剌한若肌를 更生식힌다

定價・二圓十錢・五十五錢

洗手에・化粧에
就寢前에・맛사ー지
에理想的인淸掃榮養
콜드크림

超微粒子配合成分均齊混和
自然緊張、발음에깨끗하고
오래끌수잇서絕對로化粧이
밀리지안는色感鮮麗한우데
나의八色白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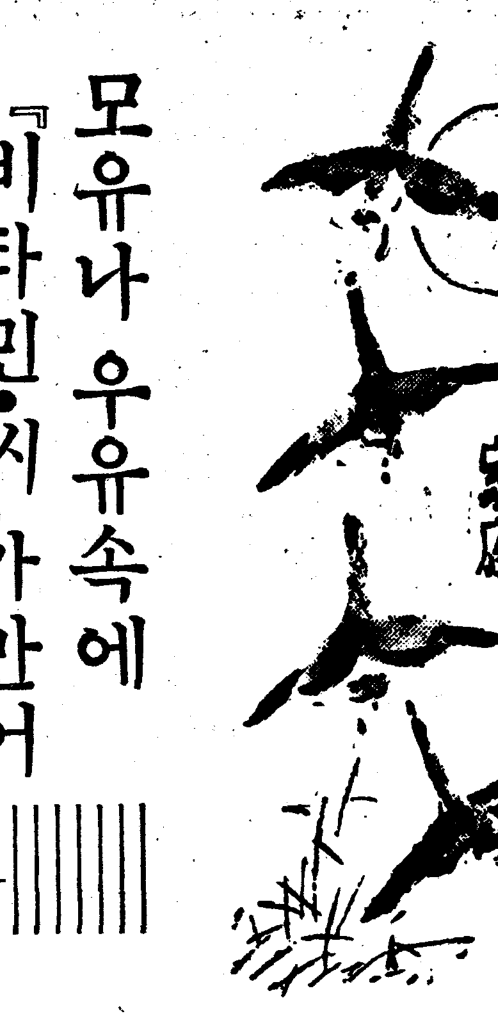
各色・定價 五十三錢 三十二錢

ウテナ粉白粉

ウテナ化粧品 マツシタテナ本舖・東京・久保政吉商店

M.10—5.2

가을의 구룡연



모유나 우유속에 『비타민·씨』가 만어

조물주는 실수하는 일이란 업다

아즉까지는 몰랏든것

어머니가 각긔나 또는다른 병이나서 고생될때 젓이주리는듯니다. 갓난애기들을 위해서 유모를고를때 그것이 조흔지 납분지를 조사하는데 황천씨방웅(黃川氏反應)이라는것을 봅니다 이방웅은 젓가운데 『비타민』『씨』가 만히잇는지 적게잇는지를 알게되는것이니 양성(陽性)으로나타날때는 조코 음성(陰性)인때는 납분것입니다

그러나 어째 비타민『씨』이외에 저메거애기의 저항력을 놉히고 괴혈병(壞血病)을예방하기위하야 무엇보다도 필요한 비타민·씨가 먼저말한 황천씨방웅으로보아 조타고하는젓일수록 적게드러잇다는것이 요컨대 매우주목되어잇습니다 또한 이방웅과는무관계로 어머니의 젓이나 우유가운데는 『비타민·씨』가퍽 적게드러잇다고 말해왓습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 『비타민·씨』가 드럿든지 안드럿든지 모르는만큼 아주적은젓을먹고도 그애기가 『비타민씨』가부족해서 생기는병 즉 괴혈병가튼것에 걸리는일이 비교적적은것은 큰의문이라고볼수잇습니다 엇잿든애기들이 필요한 비타민·씨의 분량이라는것은 그러케 만은것이아닙니다만 그러타고 먼저말한 방웅으로보아 조타고하는것에 도리혀 『비타민·씨』가 적다는것은 퍽의심스러운일일뿐더러 그러한 『젓을구별하는방법』은 아모가치도업는것이라고 볼수밧게업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와서 이의문이 겨우풀리게되엇습니다 그것은 이방면에대해서 특히 부인네의젓을 놀연구할 긔회를가진 의학자들로말미아마 그동안 별로업다든 『비타민·씨』가 사람의젓이나 우유가운데 퍽만히드러잇다는것이 판명된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이런것을 몰랏든가하면 그것은 가특비타민·씨이면서 그성질이라든지 그형(型)이 종래의것외에 또잇는것을 몰랏기때문입니다.

즉 『비타민·씨』에는 환원형(還元型)과 산화형(酸化型)두가지가잇는데 이때까지는 환원형의 『비타민씨』만이 잇는줄아랏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원형으로부터 단지수소(水素)가 업서진것을 산화형이라하는데 이요, 그영양가치에 잇서서 완원형과결국 똑가튼가치를 가진산화형의 『비타민』씨가 퍽만히 드러잇는것을 비로소알게된것입니다. 이산화형의비타민, 씨는 사람의젓 가운데는[illegible] 우유속에 퍽 만이드러잇고 [illegible] 그러것이아니라 [illegible] 을로 [illegible] 우유속에도 [illegible] 화학의것은 [illegible] 열에강한데 다른것에 에서도저항력이 강한까닭이 아닌가합니다.

엇잿든 비타민, 씨라는것이 사람의젓이나 우유가운데 에도상당히 만히드러잇다는 것을 아라둘필요가 잇습니다.

남보기흉한 누른니빨

고칠도리업슬까

입들이 아모리곱고 살결이백설가테도 니사속이 곱지못하면 미인소리는듯기틀렷습니다 니가고르지 못한것은 별문제로하고 니가누러코 검은것은 변주접한니다

×

뭇시 누-런니빨리일것가트면 기제도치(旣製陶齒)의 [illegible]를한다거나 『포-세렌·자켓』(陶材齒冠)을씨우면 감쪽가티 하-얀니빨로보이게될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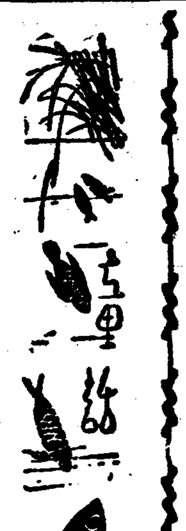
이러케 니를해씌우는외에 생니빨을 약으로깨끗이 닥는법도잇스나 대개는 한때뿐이요 얼마지나면 다시 누러케됩니다 억지로라도 효과를 보라면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를 충치하게해가지고 치솔에무치거나, 탈지면에적시어 닥그면 깨끗해질수잇습니다 또는그외가튼방법으로 희염산(稀鹽酸)을 사용해도조흐나 산(酸)은 니의조직을상하게하는것인즉 권할만한것이못됩니다

×

이러케해서도 안된다면 천생으로 그런니를 타고난것이니 제일먼저말한 도제치관으로 가짜니빠리를해씌우는수밧게 별도리가업습니다.

살안트케하자면

날이 이러케 점점치워오니 손발이려서 곤난할때도 닥처옵니다 찬바람에 살결이 트는원인은 찬기운으로인해서 혈액의순환이 충분치못되는까닭이므로 지금부터 주의해야됩니다 몬저에방하는방법을 말슴드리자면 업어러지기쉬운곳은 매일두서너번 아침에 이러날때와 저녁에잘때쯤해서 오분 내지 십분간마찰을 하는것이 매우효과가잇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러케 힘써해도 효과가 업슬때는 심장이라든지 호흡기(呼吸器)계통에 병이나 빈혈증이 원인이되는것인즉 의사의 진단을바더 속히이원인을 업새도록해야되며 영양가치가 만흔음식물을 먹어 몸전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합니다。



왕자와거지 ③

마-크·로웬 作 / 崔秉和 譯

「요런 제리가 처갈자식이어드로 차도라다니기에 빈손으로 팔팔도라와?」하고 아버지에게 꾸중을듯고 나종에는 얼굴이고 머리고 닥치는대로 딱!딱!따리엿습니다。그것이지나면 이번에는 할머니가 기다리고잇다가 무서운얼골을 해가지고지독하게 꾸짓기도하고 따리기도 하엿습니다。그러고들의 노겨우는 소리가 끗치기전에 「그저울고잇니、엄는 자기나해라。」하고저녁밥도먹이지안코 그대로 자게하는일도 이왕스런일은 아니엿습니다。쫄쫄!소리나는 빈배를 부둥켜쥐고 단단한마루바닥위에 쓰러져 자는것은 몹시슬펏습니다。그러나 그런때에는 방중에 어머니께서 살작 여프로오시여서 「톰아! 소리내지말고 먹어라。」하고 저녁밥 먹을때 어머니께서 잡수시지안코 감추어두엇든 빵조각을 아모도모르게 갓다주시엿습니다。

그러나 톰은 별로히 자긔의 신세를 슬퍼하는비치 업섯습니다。잡스런 뒤킬의 아이들이 자기와가튼 몸을 당하고잇는것을 보고잇스므로 그것이당연한일로 생각하엿스므로 그다지 불행한것이지도모르겟습니다。그것은 하여간에 어느때는 자기가 행복스럽다고 생각한때도잇섯습니다。즉 그것은 톰이살고잇는집 판방에살고잇는늙은 안도류-라고하는 나회보수신 중이잇서 톰을 대단히 귀애하야주시는까닭이엇습니다。

그중하라버지는 예전에는 어느한절 주지(住持)로 게시엿든분인데 엇저다가고만이러한곳으로 굴러드러와서 어렵게지나시면서도 늘 이동리아이들을 모와노으시고는 사람이직히지 안흐면 안될 독바른길을 가르켜주시엿습니다。그중에서도 남자미잇는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국문과습자도 아르켜주서엿습니다。나중에는 어려운 엣날까지도 조곰식아르켜주시게되엿습니다。

요사히는 좋은 자기먹을것만 차저먹으면 비러질을 고만두고 안도류-하라버지방으로 뛰여가서 반나절이상을 그곳에서 보내엿습니다。안도류-하라버지는 좋아하는대로 여러가지엣날이야기를 들려주시엿습니다。그중에서도 제일좋을 기뻐게한것은 호화로운 임금님과왕자님의 이야기엿습니다 「쳐서! 쳐서! 어떠맛고 무지소리 볼기에 채고 한쪽」 동이를 터려온냄새가 나는 영성한집웅우에 내려지고얇은 분담뇨미려서 주렴과고달품에떨고잇슬때에도 좋은 자기를 가조와하는 왕자님의 일을 생각해내면 별안간 아픈것도괴로운것도 이저버릴지경이엿습니다。나중에는 어떠케해서든지 전하왕자님을단한번이라도 보앗스면하는소원을 품게까지 되엿습니다 오죽 슬픈것은 안도류-하라버지가 가지고잇는책거떼에서 보아도 왕자님은모다 비단옷을입고잇는데 저는남루한옷을 입고 손이나발이나 얼굴이나 먼지와때로 더러워진것을 생각하면 톰의마음은 갑작이어두워젓습니다。

그러는동안에 톰은 자거도모르게이야기속에 나오는 왕자님의흉내를 내게되엿습니다。그러니깐 이상스럽게도 그의 몸가지는법이라든지 말하는것이라든지 그럴듯하게보이고 또 점잔허젓습니다。여러동무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자미잇게보고잇섯는데 점점 톰은동무들중에서 그세력이느러가고 나종에는 한동위사람가리 여러아이들에게서 공경함을밧게되엿습니다。

요사히는 톰이놀때에도저곰까지놀든 버릇으로 흉위에가 두려움지안코 그대신 「대궐노름」이라는 작란을발명하엿습니다。물론톰이가왕자가 되엿습니다。그러고다른동무들은 근위병(임금님모시고잇는병정)을 만들고시종(侍從)을 식히고 대신을시키고 계집애가잇슬때에는 귀부인을 시켜서 책에서본 대궐흉내를 내기도하고 대신회의(大臣會議)도열고 육군과해군을 식민지로 명령을 내리기도하면서 놀앗습니다。

이러케놀고잇는동안에 왕자님을 보고십다는 톰의희망은 더욱더욱 커저서 다른희망은 거림자와가리 사라저버리엿습니다。어느날밤에는 어느틈에 자기가훌륭한왕자님이되여서 수만흔귀족과귀부인이 느러시가온대가벼웁게인사를하면서지나가는꿈을꾸엇습니다。

그때 톰의머리위에는 보석으로웬통꾸민왕관(王冠)이언처잇섯습니다。넓은방으로드러가니깐 불빗이밝게비치고 아름다운냄새가 풍겨오고 황홀한음악소리가 들려왓습니다。

第一回全朝鮮敎會音樂合唱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月)午後七時

場所 京城府民館

規定

一、本大會는每年秋期에京城에서擧行함

一、本大會에優勝한合唱團에게는特定한優勝獨逸盃를授與함(但優勝獨逸盃는次大會까지保管하고 三回連勝한合唱團에게는此를永久히授與함)

一、本大會參加合唱團은全朝鮮基督敎(何派를莫論하고)敎會合唱團에限함

一、參加申請書에는該當敎會擔任牧師의認印을要함

一、出演合唱團은必히二曲을演奏하되

A、一曲은主催者側에서指定한曲(別紙添付)

B、他一曲은自由選擇曲(申請書同時提出)

一、審判은本主催者側에서指定한專門家委員의採點規定에依하야此를行함

一、本規定에記載치아니한事項은一切慣例와審判會의決議에依함

申請

一、期限 昭和十一年十一月末日까지本會에到着함을要함

一、費用 本會參加費用은各自가負擔함

一、主催者側에서定한曲譜가要할時는本會宛請求함을要함(但三錢切手添付)

一、歌詞는許可手續에必要하오니原文一通과此를和文으로飜譯한것을參加申請書에添付할것

主催、京城貞洞第一敎會엡윗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까닭모를불면증

함부로 못쓸 잠오는약

(下) 뜬눈으로 밤을밝키는분은 먼저이점을주의하시요

그런데 잠잘약을 살때는첫제 폭가튼 원인으로도 전연 잘수업는것과 잠이들기가 거북한것과 자긔는 자는데 잠이갑지못하야 잠잔것갓지 안흘때등의 여러종류가 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데 아모런 수면제라도 쓰면나호라는 법은업슬것이며 그분량에 어떠케 될것인가를 잘생각해서 써야할것입니다 이것은 각각그수면제의 종류에 따라서쓰는분량과방법이 다른것이니이것을 여긔서 일일히 말슴드리기는 어려우나 전연잠을잘수업슬때는 다른데보다 조금분량을 만히 쓸것이며 잠들기가 거북할때에는 흡수(吸收)가 빠르고 분해(分解)와 배설(排泄)이 쉬운것을 조곰쓸것이며 잘수업는사람은 분해와배설이 느린것을 쓸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수면제의 종류인데 이때까지써오는 수면제는 여러종류가 잇스나 위선 누구나구하기쉬운 『아다린』과 『카르모친』에대하야 말슴하면 『아다린』은 잠을청하는 동시에 신경이흥분되는것을 진정시키는것입니다 다른량은 적으나 쓰는분량을 그르치면 중독되여버립니다 또한 놀다라노코 먹으면인이붓기쉬우니 주의하여야 됩니다

「카르모친」은「아다린」에 대다하사람이 냉수로 분복하면 효험이 만습니다 자연스러히 노곤해져서 잠이잘오게됩니다 흡수배설이 잘되며 다른탈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다른부작용이적은 수면제라 하드라도 늘다라노코먹으면 인이백이여지므로 효험이 적어지며 쓰는분량을 지나치면 위험한작용을 이르키게되는것을 잘알어두어야 합니다 수면제를먹고 자는잠은 생리적으로 자는잠과 말러서 정신의휴양으로서의 잠은 되지안코 위장을 해롭게하며 혈압을 낫추는등의 부작용도 잇스니 의사에게 의론하든지 달리라도 잘 아려본 다음에먹는것이 조흐며 자긔의 체질에 맛도록쓰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길일흔애기새

아츰해스빗치 따듯한 오날아츰에 장독우에는 길을일흔 애기새한마리가 쉬고이섯습니다。 하루종일 집을찻느라고 다리가압흐든지 편히안저서 잠이드럿습니다。

(글쓴사람 남기훈)

連載野談 (一八)

布袋記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마저죽기소원(七)

리선전관이 그 창두의 소리이 업는데 대하야

「허허。그 위인님편이 심하지아니해 보이거들 어찌해 일거무소식일가。이러케 시일이 천연한다면 악다른곳에 당한처지로 부지런시 꺼비만 날것이오 떡경 일은 랑패가되고말것 그럿타면 과연 죽는길 밧게는 거리길이 업슬것。」

하며 그창두를 기다리든 마음이 지나처 이제는 알밉을 괴탄하지 아니할수 업게되엿다。

이철이가 견데서 리선전관이 괴탄하는 양을보고 코게 민망히 생각하야

「나으리!。공연히 이놈이 방정을 떠려 그창두놈과 맘이 되여가지고 부지런시 돈열양만 허비가되것뿐 아니라 그 고약한 놈을 밋고 정작 주선을하야 볼곳도 하지못하게되고 시일과 깨비만 나게될모양이오니 이를 장차 어찌하오릿까?。」

하며 부지런시 그 창두를 소개한것이 그게 후회가 되는듯이 말하얏다。

「옹。설혹 속는다하거니 네의 허물이 무엇이겟느냐。그러고 그 위인이 사람을 속일것갓지는 아니해。설혹 속일 때음이 잇다면 그러 돈열양을 속여먹고 말겟니。속여 먹을려면 내돈 삼백양을 다 속여먹지。아무리 남의집 종노릇을하는 놈이거니 그러케야 적울리잇나。무슨 까닭이 분명잇는일이어니 좌우간 기달여 보자!。」

하며 리선전관은 그래도 밋는생각으로써 이철이가 미안이역이는것을 도리혀 풀어일럿다。

바로이때 그 창두가 급한 거름으로써 들어오며、

「나으리!。문안드리오。배우기 달니섯지요?」

하며 그 동안 소식이 끈친것이 미안하다는뜻을 말하얏다。

「아니。무슨 연고가 잇섯는가 아닌게 아니라 몹시 궁굼히 생각햇서。」

하며 리선전관은 너머나 반가운 괴색을 보이면서 빨니 방으로 들어오기를 말하얏다。

리선전관이 그 창두가 방에 들어온뒤에 은근히 그창두의괴색을 살피면서、

「그래 별연고는 업섯든가?」

「아무 연고도 업섯슴니다。」

「그러면 어찌해 그러케 격조가 되엇서?。」

「벼슬자리를 주선하자니 어쩌 그대지 쉬사오릿가。여러길을 찻노라니 자연 바쁘슴니다。」

「그것은 그러켓지。버머나 애를 써서 원」

「그런데 긴한 자리는 하나이엿습니다만은 깨불을 좀 쓰지아니할수가 업습니다。」

「암 쓸것은 써야지。그대은 뉘대인데?。」

「예。그대은 다른 댁이아니라 우리댁 대감마님의 매씨가 되시는 댁입니다。」

「하하。그래?。」

「예。그런데 우리댁 대감마님께서는 여러 일가댁과 화목이 대단하시지오만은 그중에도 특히 그매씨께는 갸륵한 우애가 계실뿐아니라 그아씨의 말슴이라면 별로 시행을 아니하시는일이 업섯습니다。그까닭은 다름아니라 그아씨께서 일즉 홀노되섯는데 그것을 배양 불상히 생각하서서。」

「오옹。그러시겟군。그래 그아씨댁에 가서 무엇이라 엿주엇서?。」

「다른 말슴이잇나요。첫재는나으리께서 과연 대장이되실만콤 잘나섯다는 말슴。그다음에는 나으리께서 공명을 하직하시고 시골댁으로 가서서 어느때는 구름속에서 밧을갈으시고 어느때는 달아래에서 낙시질이나하시면서 세상을지내시려다가 그래도 그래서안라는 생각이 도니서서 벼슬을 구하려오섯다는 말슴。그 전후 말슴을 다 자서히 엿줍고 례물로 돈 백양만드렷더이니 매갑게 말슴을 긴히 엿주어서 성사가 되도록 주선을 해줍시사하고 엿주엇지요。그랫드니 아씨말슴이 아이고 그러케 잘나신 양반께서 초토(草土)가 무엇이지 뭐구 초토에서 썩으실수잇나 벼구나 이어지러운 세상에。하시면서 쾌허하시하섯서요 어찌하시렵니까 그돈 백양을 써보시렵니까?。」

하며 리선전관의 얼굴비츨 살피엿다。

리선전관은그 창두의 말이 모두 마음에 기뿐드인바 특히그러케 잘난 양반이 어찌 초토에서 썩겟느냐하얏다는 말이 더욱마음에 짐니여

「허허。너는 과연 창두로 쾌기가 약가운 사람。말잘햇서、참으로 잘햇서。그리고 그돈이야 그런데 쓰라고 가지고 온것이니 떼맘할것잇나。」

하며 곳 돈 백양을 꺼내어서 그 창두를 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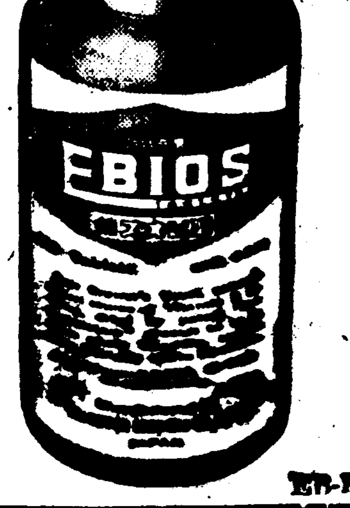
그 창두는 그돈을 바뻐 수습한뒤

「래일 오겟습니다!。」

하고 하직한뒤 대문밧글 나서면서 한번 벙긋 우섯다。

病弱體에 エビオス錠

에비오스정



병환으로 누어게신분에게 큰 문제는 구미가업서저서 아무런 음식물도 잡숫지못하게되야 몸쇠약이 몹시 심하게되며 病도오래끌게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잡수시든약도 잘듯지안케되나니 무엇보다도 弱하게된 胃腸의 활동력을 바로잡아서 먹은음식물을 전부 살과피로되게하야 자기힘으로 몸을회복식혀야됩니다 이것은 사람몸에귀중한 영양소 비다민비가 不足된새닭임으로 에비오스가 모도보충식혀줍니다

에비오스錠은 모든自然物중 가장 켜브純正한진국인 麥酒酵母劑이오니 日本藥局方에도 麥酒酵母에限한다는條文이 잇는것으로도 그얼마나 조흔것인가를 아실줄밋습니다

에비오스錠을連服하시면 기력이업든 胃腸의 活動力이 다시곰 민활케되야 먹은것이 곳 消化되고 변통이 조화지며 음식물을 잘잡숫게되야 몸이곳회복됩니다

三○○錠…一圓六十錢
一○○○錠 四圓八十錢
그외粉末도잇습니다
全道藥房에서販賣함

[illegible]博士創製
[illegible]博士監製

삿뽀로·아사히·유니온·에비스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大阪 田邊商店

ER-K-47

一秋窓斷想一 無風地帶(上)

① 白鐵

내가 거러가는 길바닥에 우수수 나무닙이 떠려저 굴러다 나무가지가 몹시 흔들니우는때문이라고 생각햇다。바람이 부는가보다!고개를들어 나무가지를 우러러 보앗다。나는 거기에 蕭條한 가을바람과 爽快한晴天을 期待함이엇다。하나 맑은바람은 나무가지를 흔들지 아닛다。그리고 호리어 암담한 하늘에 구름까지가 움직이려고 하지안흘때에 나는 不知간 생각햇다——荒然한일이 아니냐 내가 서잇는곳은 無風地帶이니까!生命업는 落葉이 아모러 果積한들 그枯葉의 累積에서 明年의 새싹은 萌芽를 期待할수는 업지안흘까。

이때에 나는 나의 눈아페 落葉의 無風地帶를 바라보고 엇섯다느니 보다는 今日의 文壇을 생각하고 잇섯다는것 아니 지금까지 無風地帶의 文壇을생각하면서거러왓는때문에 이가을날 午後의 風景까지가 無風地帶로 變해버렷다는것이 事實일는지모른다!落葉!그러다!우리들의無風地帶우에는 數多의 作品이 落葉과가티 떠러지고 落葉과가티 腐敗되고 잇지안흔가!

無風地帶!내가 온갓 憤慨에 不幸한文句를 생각지안코 우리文壇을 形容하려고 努力해왓슴에 不拘하고 依然히 이文句는 今日의 文壇을 形容하는때 適切한 文句인은 웨일일까?

落葉을 바라보면서 夢想하다가을이 아니다 적어도 今日의 狀態가아니다。過去에 對한 追憶일까。그時節을 新傾向派運動이라고 불으거는 或은 루네산스運動이라고 想像하든지 그것은全然 讀者의 任意려니와 하여든 그것은 이것과는 틀리는光景이 아니면 아니된다——插話된것이 잘 芽되고 待機의 狀態에 잇는것이 好機를 어더 開花하고 成長하고 燦爛한時代그偉大한 批評을 夢想하는 悲夢(!)에서겟때에 여기에는 우수수 落葉소리 우리들은 다시금寂寞한 氣分을 感受할수가업다

現象的으로보아서 今日의 우리제네레이숀에게는 統一된 主潮가업다 우리들이 한거 뛰어들고싶은 主潮가업다는것이 첫재로 눈에띄이는 事實이다 그偉大한 批評에는 豐富한 多樣性이豐富하고 잇음에不拘하고 우리들은그表面의 多樣性을感情할때에 언제나 거기에는 統一된힘이貫流되고잇섯다는것을 볼수잇다。말하면 그當時를떠메고 잇는人間들의 精神이 한줄기에主潮우에 서잇는것을 볼수잇엇든것이다 한때 우리들은 그必要한主潮를 붓잡지못하고잇다。다만에기에는 호리어 새운테로 沈滯되여잇을뿐!

이러한 現象은 勿論 時代의 事態가 退步해간곳에 責任의 原因이 잇슬안다。콤푸니즘의 思潮는 커다란 밋물과가티 潮湖되엇다가 나갓다 하나 沈潛된 民衆的은 그때로 沙漠우에 노여、잇지안흔가?

나는 年初에 「人間探究의小說中에서도 이야기한일이 잇거니와 어떤의 젊은 제네레이숀 그중에도 一部인테리에게는 現實生活에對한 積極的情熱이 업서젓다 希望과 情熱이 前時代에잇서는 인테리의 한生生한 生活情熱으로 되여잇든것이 今日에와서 인테리가 그生活熱情을 代表할生活實體를가 되지못하고그것은 生活을떠난 浪漫的氣分으로흘너가 버렷다 흘너간 情熱뒤에 남은것은 頹廢와 安定과 退嬰과 懷疑의 氣分! 그不祥한 氣分우에 今日의 文壇無風地帶가 일너저잇스며 그退嬰安逸의 氣分은 文學의 主張과作品의傾向우에도 表現되여잇다。

實存哲學序說

─하이덱가를中心으로─

① 朴如涯

現代에잇서서 吾人은 實存이란 熟語에 만흔 關心을 가지게되것이다。事實에 잇서서 이熟語는 現代哲學의 根本的傾向을 表現하는 現代的熟語로써 使用되고잇다。우리는 이

…熟語…의 根源을 기에르케골(Soren Kierkegaard)에서 發見할수잇다。그가 그時代에잇서서 高調한 命題는『人間은 實存者이다』(全集第六卷 一九七頁)라는 命題이엇든것이다 實存한다는것은 무슨 隨意的 對象에 關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人間自體에 關한 不可避的事實을 指示하는것이다。人間만이 오직 實存하는것이다。實存하는 人間은 現實的 全體的 人間을 結局 神學的 哲學的 認識의 主體로서 觀破하려는데서 우리는 하이덱가의 實存哲學과는 크게 區別지여야할만한 契機를 發見할수잇스나 어떠튼 우리는 그가 實存神學及 實存哲學의 最初의 探求者이것만은 是認할수잇슬것이다。기에르케골에 잇서서 哲學의 第一課題는『存在를 思惟하는 思惟的 人間은 다만 實存的 人間이 아닐수업다。만일 그러치 아니하면 모든것은 困惑에 直面할것이다』(全集第六卷 二四八頁)라고 할만한 事實에 注目하얏던것이다。

어떠튼 기에르케골의 思想은 現代의 辨證神學과 및 實存思想의 發展에 不少한 影響을 준것만은 忘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現代…에잇서서 實存哲學者로(Karl Jaspers, Eberhard Grisebach, paulTillich, Fritz Heinemann, Hans Reiner, Nicolai Hartmann)等을 枚擧할수잇스나 아모리하야도 實存哲學의 代表者는 하이덱가라고 말할것이다。우리의 만흔 關心은하이덱가 哲學의 具體的內容을 主題삼지는것이 아니라다만 (1)實存哲學의 前提로서의 存在概念、(2)實存分析의 意圖及 (3)解釋學的 方法等을 吟味考察하는데 끈치련다。

一

하이덱가의實存哲學의 窮極의目的은 實存(人間的存在)을通하야存在란무엇이냐가를 究明하자는데잇는것이다。그럼으로 普遍的存在論은 特殊的存在인 實存의 分析學을 基礎로 삼지안흐면안된다。

그런데 實存分析은 어미 엽마름이라도 存在一般에對한 知識이 업시는 成立할수업는것이다。如斯한事情에依하야 본다면 하이덱가의實存分析에는 存在一般의意味에關한 엄마만한 知識이 이미 前提되여잇슴을 可히 推測할것이다。

모름직이

…人間…은 아모런前提업시는 哲學할수업는것이다。그럼으로 哲學的무름(問)은 哲學的探求(Suchen)을 意味하게된다。따라서 모든 探求는 被探求者(Gesuchtes)로부터 先行的 指導를 밧는것이다。

人間存在(實存)에 對한무름에 잇서서 存在의 意義는 임이 우리에게 處理할수잇는것이 아니면 안된다。이와가티 存在의 무름에잇서서 임이 先行하는 存在에 對한先知識은 하이덱가에 잇서서는存在理解라는 事實을 意味할것이다 이와가튼 存在理解라는 先知識은 어데로부터 오는것인가。이것의成立은 如何히 可能한가。그리고 이事實로부터 무엇이 形成되여질것인가。

그런데 이곳에서하나 注意할것은 우와가튼 先知識을 곳本來的意味에잇서서의 固有的前提로 알아서는 안된다。그것은 다만 存在에對한 漠然한 理解—不可避的意見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면 하이덱가는 如何한存在槪念(存在理念)을 前提로하야 實存分析을 始作한것인가。우리는 前提的意味에잇서서의

…存在…一般에對하야 그것의根本性格을 생각하여보기로하자。

먼저 우리는 存在一般의 超越的性格을考慮하려한다。하이덱가의存在論에依하면 存在는 超越을 意味한다。

大體 存在를 우리는 如何히 規定할것인가 存在者는잇는것이요 그것은 現在에잇는 多樣의對象이라든가 또는 數라든가 一般槪念的普遍者等을 指示한다。그런데 存在自體는 무엇인가。하이데가에 依하면 存在는「存在者를 存在者로서 規定하는것이다」(「存在와時間」六頁)。그럼으로 存在는 決코 存在者가아니요 또한 存在는 存在者의類槪念도아니다。存在는 存在者가 아니다라는 規定은 存在에對한 消極的規定에 不過하다。우리는 다시나아가 存在者와 存在에對한 積極的規定을 생각하지아느면안된다。

一漢 詩一

題 白頭山

押 峰

桐岡 考選

佳作之一之五

遂安 沈基炯

鎭國名山萬丈峯
形如躍虎氣蟠龍
兵使一枝南抵漢
天池餘派北成松
黑雲濃霧晴還雨
皚雪强風夏亦冬
好是今從平地望
却疑前日躡仙蹤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訓民正音頒布記念을압두고
正音反對派의上疏

⑦ 方鍾鉉

以上에서 우리는 崔萬理等의 上疏文을 그대루 보앗으니 그時代의形便이 어떠한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기가잇다 첫재로 우리가 느끼는것은 世宗大王께서 이訓民正音을 發布하시기에 果然 큰 힘을드리신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다 諸臣이 反對도 相當히 强한것이엇거니와 그보담도 老後의 眼疾이 甚하시어 淸州에椒水의幸이 잇섯거늘 다른일은 다폐하고라도 이正音의일만은 親히 하신것은 참으로 上疏文을 빌어보아도 알거니와 더욱 念하심이 懇하시엿도다。이 遼東에 한두번도 아니고 十三度나 使臣을 보내시어어 글을 바루잡기에 뜻을 두시고 또이일을 가장 큰일이라고하신것은 上疏文가운데에도 잇거니와 世子가 비록 細小한일 일지라도 맛당히 참결하여야할것이어늘 하물며 諺文에 잇서서나 하시는 이런 잇고 뜻기픈 一言이야말로當時의俗儒에게는 깨닷음조차못주엇을찌모루나 오늘에 우리야 말로 果然 感激함이 몸을 흐를고도남음이 잇도다

또 하가지『汝知韻書乎』하시는 即너이가 韻書를 잘아느냐 하시어 써 學問上으로해 博學인崔萬理를 누르시고 아무리 在來의 韻書라하여도잘못된것은 校正할것이라하야 若非據正其韻書則伊誰正之乎』하시엇스니 世宗大王이 韻書의 研究에 잇서서 當時의 大學者를 누를만하엿다는것을 우리가 알수가잇고 또한가지큰 事實은 訓民正音을 制作함에 當하야 韻書를 重要示하얏다는것을 우리에게 더욱 힘잇게 證左하는實例가 되는것이라고 보겟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自信이 確實한後에야 비로소 萬難을 排除하고 進行한다는 깨닷음을가질수잇다는것이다

끄트로 생각하고저하는것은 崔萬理의 上疏文가운데 「二十七字諺文」이라고한 文句가잇스니 이것이 어떠한것인가하는것이다 웨그런가하면訓民正音에는 分明히 二十八字를 制作하야公布되엇거늘 여기에 二十七字라고함은 무슨가닭이지 우리는 疑訝하지 안흘수업다 崔萬理等이 諺文이라고 하야 그字數를 正確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알 고저하지도 안흔데서誤因된것이라고 看點도 不無하나 그러나 적어도上疏文에 그字數까지를 모르고 反對의論을 擧하엿슴이라고는 생각되지안흐며 또 그때에 만일 二十七字가 아니엇다고하면 世宗大王께서 上疏文을 다보시고 一言半句도 이 字數에 잇서서 校正함이 업슴理가 萬無한것이다。

그럼으로 이때까지만해도 二十七字의諺文이엇든것을 그後에 一字를 다시 加入하야 二十八字로 고친것이라고 볼수밧게 업다。그러면 追後로 加入된字는 果然 어떤字이엇슬까 생각컨댄 今日에 至하야 使用되지안는字中에서가 아닌가한다 即『ㅿ』『ㆆ』의 두字가운데서 하나일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다 이事實을 우리가 訓蒙字會에 비치워볼必要가잇스니 그것은 訓蒙字會에 그『初聲訓蒙凡例』를 보면 이러한 文句가・잇슴을 보게될으로서이다 即 諺文字母라고 쓴題目아래에 그欄로 俗所謂反切二十七字라고하는말은 말은것이잇스니 이廿七字라는것은 崔萬理의 上疏文가운데잇는 廿七字라는것이 或 무슨 關聯되는것이 아닌가하는것이다。여기에 暫間 그關係를 考察해보 莫論하고 訓蒙字會에서는 무슨 글字가 訓民正音보담 一字줄어지어서 二十七字가 되엇는가를 보고시픈것이다 그리하야 訓蒙字會를 상考하면 初聲終聲通用八字와 初聲獨用八字로 되어잇고 中聲獨用十一字로 되엇스므로 우리는 初聲中에서 一字업는것을 알수잇스니 即『ㆆ』字가 全然記入되지안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한바와가치『ㅿ』『ㆆ』두字가운데에서가 아닌가한것이다。그러나 訓蒙字會에는 事實上 二十六字임을 그字形上에서 發見하나니 그것은『ㆁ』(異凝)字와 『ㅇ』(伊)字가 조금도 字體上으로는 틀리는것이 업고 다만 初聲에 서만 쓰는것이 ㅇ(伊)이요 初聲終聲에 通用하는것이 ㆁ(異凝)이라고하는點이 달을뿐이다 即 字形의우에서는 全同하고 使用하는데는 달을뿐이다。그러므로 우리는 崔萬理上疏文中에 二十八字가 아니고 二十七字인 그줄어진一字가 만일 분명이 잇다고하면 그것은“ㅿ” “ㆆ” “ㆁ”의三字中에서 하나일것이라고推測되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그때까지 二十七字로 잇섯다고 假定하야 아직 一字가 마저 決定되지 못한때이엇다고하면 그決定못된一字가 곳 上記三初聲가운데에 잇섯슬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다 그러나 訓蒙字會는 時代가 좀 떠러지므로 上疏文의 事實과 對照하야 論斷할수는 잇스나 그것을 證明해주는 材料로 삼기는困難한것이다。더욱이 이上疏文보담도 前年에 (일로는 一個月間若異이지마는) 發布되린記錄인 世宗實錄 癸亥十二月條에 보면

上親製諺文二十八字……

라고하엿스니 이 上卡의記事 果然 우리의疑心을 더욱 크게할뿐이요 조금도 새로운解決을 주는것은 못된다 오직 이러한境遇에 잇는 訓民正音의字數엇슴을 우리는 알수잇는것에 不過한다

以上으로써 訓民正音의 製作된때와 그御製文과 또 이에對한 鄭麟趾의 訓民正音序와를 보아 써 우리글의 發足되形便을 참자보앗고 또 崔萬理等의 上疏文에 依하야 當時에 儒家로서의見解를 窺知할수잇는一方 世宗께서 訓民正音을 이世上에 公布하시기까지에는 말할수업는 큰困難이 여러가지로 잇섯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수가 잇다 우리글이 現代와가티 文明한 이世界에 잇서서 그어느나라의文字보담도 가장 잘 組織되엇다는點에서 또한번 世宗大王께 머리숙여敬禮를 表하게되는것이다。이글을 지으신이에게는 百번이요 또 千번이라도 머리가 숙지안흘수가 업다。(丙子十月)

▲……바—람—은—여—긔—와—운—다

隨筆二 薔薇와祝祭 (三)

安龍灣

두혜전의 일……●園藝한 페일을 마음것먹은뒤의 誠味가려드것은 情緖의 燃燒를지난 한세절의 冬眠의 瞳孔을덮두고도『겨울이오면 봄이멀지 안엇서란』고 휘파람 불며 외이엇다。Y의 棚裏에 남가고온 구술가튼 誓約을 생각하면서──。그것은 두개의 希望!그가 立春후、집에서 배(船)를 작만하야 藝術의 동쪽을달고 流水지네 暖潮를저어 맑은 봄、國境의 港口로 차저와 情欲의 漂泊을 떠나자는것이 하나。처음靑山이 안되면 그의 揚帆、風景山뒤봉작이 南白의 방울사서 자그만菜果園을만들고 벗들과함께 날과날을 薔薇과더부러 回想과 創造의 꿋을닭자든 이야기엇다。그곳은 歲月의 苦惱과 現實에 쏠리어 자취도업고……。이듬해에서 始作된 사철바다의 어새한 會話와노래의 相聞을 날길뿐이엇스니언제한번더 하롱다울든마음의봄을 거지겟는가。벗아!그렇지면 港灣에상마꿋 한송이꽃처럼으나。보드랍게 피는 우숨자옥을 탈가케 풀드러라。

생각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봄을그리엇고 風景은가을이엇나보다。薔薇의 이야기와 香節의 微笑。이것은 우리가靑春이라는것을 도맛이 나타내이기에 適切한 色調이기도하다。수만은 花瓣이 構成되어 一輪의꿋을 피우듯 내음새와 빗이 업자의이라고나 할가。모ー단 獨白의 色갈이 融合되고 精美化된 맑고 그윽한 『로맨』(Roman)이다。

흥사히 薔薇꼿속에 간직된 空間의 純粹한 香氣와도갓트 나의 離別曲에서 이純粹한 抒情이 숨겨저잇슴을 누가알가。오직마음의 追憶聲이라고 表顯부른『메르헨』(童話)冊 몃章채를 뒤지어 펼뿐이다。

風景描寫의 一節!●새린 서리며른 밤일수서 꺼멀든 솔거울은 이끼(苔)의 鮮麗든빗에저것다。海岸으로거는 포플라의길 초저녁의 爽涼한 散策에서의입괴밀에별며가튼 晉律어 굴러다 黃昏에 落葉구을때 呼吸은 또거웟다。밤서 그도 여덟騎節을 보내記憶으로되엇다。하건만、떠오를때마다 거럼어 마음에안옥하다。

또 이야거는……●봄과 靑春으로을마가고。나는江南에 國境까지。落葉今의情熱과詩의 浪漫을 말하엿다。어에뉘너어 Y는回想하다。아름다움을고잡으로 아름다운 會話는뭇어려마다 眞理가 다릉다릉 매저서 떠거가힘든다。벌서 헤수로 혈풍해전。文學과音樂의 드시내에서 헤매이는 步伐이 登場하다。「바로」는 봄이다。鏡은 청사랑에꺼어진 마음을 鎭江의 벗나무 앙지짜에 쌍드는 풀이에 伴侶를찻다。五龍背 夕照에서 漂浪을 그리엇고……●熱情은 따뜻혓다。보드라운 感性은 希望에 차기도 혓겟지。

이야기곳에 나의 熱情으로 저내간꿈을 찻는 情緖를 불태우자고 햇건만。開花도 못시키고 시드럿다。오늘의 薔薇도 血液을 注入할수는업다。Y는 靑春의 晩秋를 마지려는것이다。이번 나그내길에 차젓슬때 그가 서리마즌 머르알의 感傷과 凋落의 旋律을 타는것을 나는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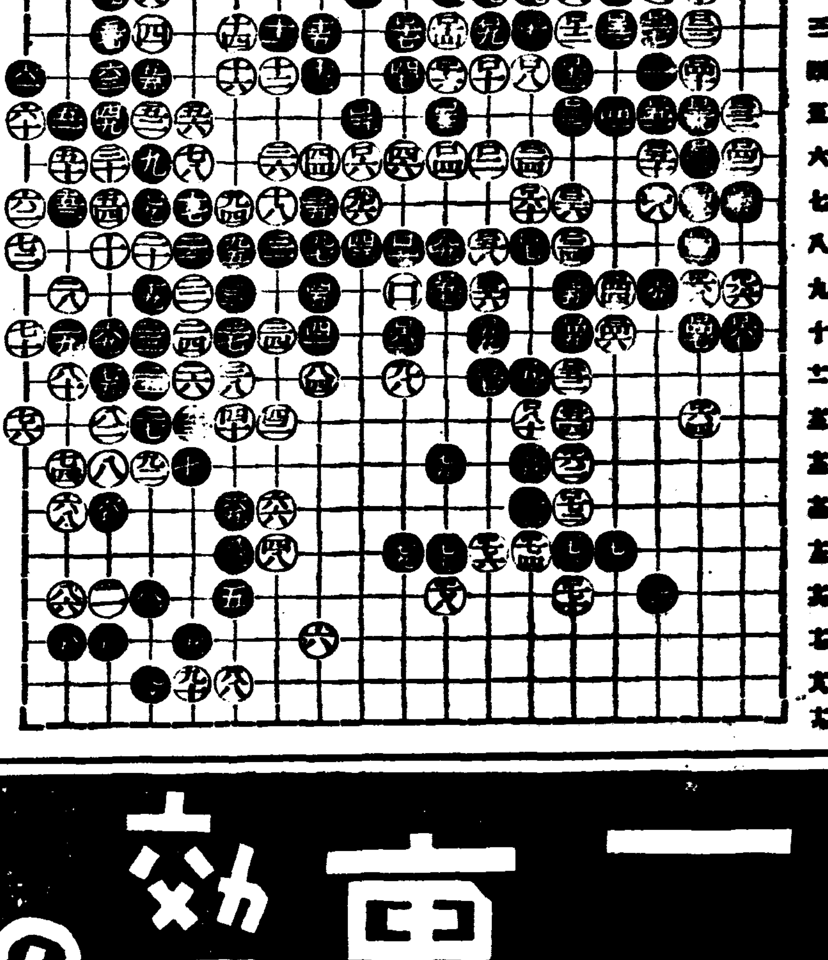
그는 그의黃昏길로 가는것이 아름답가。우리에 젊은이들이 한世代를 가지고 時代의 薔薇의 月桂冠을 쓰는悠然한길에서 그는업다。저광스러운「마ー치」에하고 빠가警流로 노래의 가슴을 울들이는陣營에도 얼섯드니 喜臘의밤 부서진 眞珠를 모호는 모스코에의 길에서도 떠러저가는가。하건만넷은 슬로 一員이다。

圍碁對局譜 ─11─

本社主催

白 鄭遠溪
黑先 李壽性

●六一 癸의十
○六二 己의十三
●六三 庚의十四
○六四 丙의十二
●六五 乙의七
○六六 乙의九
●六七 乙의十
○六八 丙의九
●六九 丁의九
○七〇 己의十六
●七一 戊의十五
○七二 己의十四
●七三 己의十五
○七四 庚의十五
●七五 壬의十三
○七六 辛의十五
●七七 壬의十五
○七八 壬의十六
●七九 癸의十五
○八〇 庚의十二



蔡極文氏評日 白巳의 十六은 左右牽制에 能率이 잇는點이다 黑中央大陣이 危在朝夕하니 弈徒當局者用韜略 亦是觀光人瞎目處로다 白丑寅十三四에 少有欠缺하니 요다음 何如方策이 出現할는지

讀者社交室

▲一、滿洲國도 朝鮮과가티司法과 行政의 代書業臨則이 잇습니가?
一、區別이잇스면 許可官廳名이무엇입니가
一、許可에對하야 人員又는他에制限有無
一、資格의程度 新堂町 李聖根

▲醫學研究家及 試驗準備하시는분에게 左記書籍을讓渡코자하오니 同價値位의 六法全書(特히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出版이면 더욱조흠)와 交換하시든지 廉價로賣受하실 有意하신先生님은左記住所로通知하시압 伯林貿科大學治療新書 定價參圓五十錢 信川郡石塘面二三〇 表東極

▲昭和十一年九月九日附로 社交室을通하야무르신 陰曆丙辰年十二月二十七日은 陽曆으로大正六年一月二十日(土曜)日辰은壬戌日입니다 陰陽曆對照하실滿天下讀者는 直接小生에게下問하시면 親切히 回答하여드리겟나이다 海州郡海州邑南本町一一一 洪在德

▲社交室을通하야 滿天下讀者諸先生任께 뭇사오니 一書던저주시면은 感謝한뜻을 잇지안켓습니다 記 庚申年(大正九年)陰十一月初五日이 陽曆으로 何年何月何日과 何曜日인것을 아르켜주시면 白骨難忘이겟습니다 仁川花手町 金生

▲十月十日社交室을通하야 問議하신 京城府三角町六七 裵誠齋氏에게奉答함
一、延興府院君에關한事項을某氏老兄으로써알고저할적에는 理由가잇슬터이니 理由를알지못하고는알리여줄수가업스니 其理由를社交室을通하야 말하던지또는 本人住所로알리여주시면 조켓나이다 金浦郡陽川 金永基

▲오동엽을 經營하자면 먼저 허가를어더야하는지요?허가가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허가원을제출하여야하겟습니가 상세히하교하여주소서 榮州一讀者

▲平元線新倉市一讀者께 貴下가 本社交室로問하신 李德基氏는 京城府崇仁町六一番地 四〇號 崔在昇方에 居住하거로友人의一人으로 報答합니다 淸進町知友

▲讓渡 本間久雄著歐洲近代文藝思潮槪論 現代日本文學全集第六十一編 新興藝術派文學集(改造社版)張赫宙著 權といふ男 尾崎紅葉著 金色夜叉(中央公論社版)ルマルク 西部戰線異狀なし等 等賑價로整理함 乞照會 全北任實郡舊潭 梁基煥

▲本人은五十餘種의製藥許可를 맛고 至今營業을 準備하는中인데 將來永遠히 이事業을爲하야 드손을맛잡고 나아갈有意有望한 靑少年을求합니다 될수잇는대로 父母가업는孤兒로 普通學校나卒業한程度쯤되고 着實하고 양전한十五歲以上의 少年少女로 뜻잇는분은 下記로便紙하시오 將來이藥業方面으로 指導하겟습니다 余一浦本町 張觀文

▲市內某高普在學中의 三兄弟이온데 花洞 安國洞附近에下宿을求합니다 二間房이나 房二間이잇는집으로 家族과가티 待遇할집을求합니다 곳社交室로 通知하여주시오 求宿生

▲讀者여러분! 제가 左記書籍을 賣渡코자하오니 所用되시는분은 本社交室로住所氏名을明確히 알려주시요 任細한것은直接通知하겟사오며 書目은 全部다 新冊同樣입니다 (記) 李光洙著 端宗哀史 定價二、〇〇 尹白南著 烽火 定價一、五〇 李光洙著 無情 定價一、八〇 (京城困窮生)

▲本報十月十一日(五千五百三十一號)文藝面의 書籍을讓渡하고저하오니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압 一、無情 一、再生을買入하실분에게드리나이다 一、端宗哀史 한것이가?아닌가를 同時에 알려주시압 大邱府南山町四〇七番地 徐尙敬

▲咸興G兄에게 兄이販賣하겟다는 日本自然療養社出版物療養指導書外 療養生活誌는 제가所用하겟사오니 左記住所로보내시든지 또는兄의住所를알려주든지 하여주시요 咸南新興郡東興面 韓秀東

【訂正】十月十七日附 本欄 金納安氏의 讀稿中 第二旬의峰上은 峰下의 誤植이기에 玆에 訂正함

二重の效果白粉

스마ー트한化粧을 하기힘든분은

▲버누에依한過度한洗顔 ▲살결性質에맛지안는 白粉을使用하시면 一層더살결을거칠게합니다 ①살결性質에맛지안는白粉 ②特殊美白素가配合된白粉 ③變色치안는白粉을選擇하는것이第一條件입니다 마스타ー水白粉은特殊美肌液이되여脂肪性과거치른性의二種으로나누여잇습니다 잘먹고오래가며常用하는中살결을緊張식혀新陳代謝의機能을回復하는優秀한性能이잇는까닭입니다

脂肪性인분께 百番水白粉

佛蘭西美容術界에서常識이되여잇는皮脂의調節解悟皮脂腺을緊縮식히는特殊한作用이잇스므로脂肪性인女性에게淸新化粧을할수가잇습니다

거치른性인분께 三百番水白粉

皮脂分泌腺의正常化에極히有效한美肌劑가配合되여잇슴으로△거치른性△脂肪性으로部分的으로거치러지기쉬운분살결이너무고와서白粉이잘먹지안는분께效果滿點입니다

マスター百番水白粉

마스타ー

マスター 五百番 粉白粉

〃放送豪華版〃 파라마운트社作品

演劇協會創立公演 『守錢奴』를 보고 (三)

羅雄

아들、딸、사랑、名譽乃至 自己生命보다도 돈을 더重大하게 생각하는 高利貸金業者알파곤老人의가진無恥、狡猾、非人情、貪慾、嗇吝、卑屈、輕薄等의 心理를 阿諂과거짓과威嚴으로입서는 執事、사랑에다는 아들과딸、돈을 글거내라는 仲媒老婆、父子의더러운 사랑싸움들에 끼여 괴로워하는마리안、主人과執事들에게끼여 쪼들리는 馬夫兼쿡크。主人의잔소리로 머리를알는下人等을 通해서表現되는 우숨과 諷刺와揶揄가 齒車와가티 瞬間瞬間을 刺戟으로 터쥐하는 明暗의五分之는 모리엘의가진 作家的飄逸性과 豊富하고도 才氣잇는 劇의構成手法을 엿보게한다。

이劇에나오는 守錢奴는 當時佛蘭西에잇서 封建的인町人根性에서 나온것이며 現代資本主義社會에서는 그러한 守錢奴를 차즐수 업다하나 때를 달리하고 나라를 달리한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숨여드는것은 어쩐일인가 옷을벗기고 말을 고치고 手段을 박군다면 그와一脈相通하는人間이 現代에도 數多한데서 나오는생각이아닐가

如何間 모리엘의劇本은 直接演劇의 精神에서 나온것임으로 今般演協公演에잇서 의『守錢奴』를 어느程度까지 現代에 옮겨놓을수잇섯는가 換言하면 統一的인 劇的効果가 모리엘의守錢奴의가진 피트와角度를 어느程度까지 널폇는가를 살펴보자

演協이 처음公演이라는것과對外、對內的으로 여러가지 難關이잇섯다는 핸듸캡이 잇섯슴에도不拘하고 우리의 期待에 버러지안케 無難히 마첫슴을 기피、感謝한다。無難이란 演協自體에對해서이고 朝鮮의 全般的演劇的 水準에서 보면 成功을거두엇다고 할수잇다。이『守錢奴』의 內包된 豊富하고 巧妙한 劇的씨츄에이숸의 表現은朝鮮의다른新劇 또는 旣成劇團에서는 到底히 차즐수업슬것이다 이러한點으로보아 今般演協公演은 無限한 將來를 期約할 要素를 多分히 가지고잇는것이다 이것은 演協關係者諸氏가 東京서 堅忍不拔的精神으로 여러가지困難과 싸화가며 劇藝術硏鑽에 精進한데서만히 可能하엿다고본다。

[illegible]技倆에 言及한 에쓰라시―의同僚도 그러한 辛苦味를 맛본 演劇가들 劇團에서 만히 云謂될것이고 다른 劇團으로는 그間[illegible]치안는限 오히려 誤[illegible]用할 弊가 잇슬것으로 推測된다。

『守錢奴』에서 特記할것은 高利貸金業者 알파곤役으로 扮裝한 李化三君의 그老熟하고 餘裕잇는 演技와、金一影君의 新하고 立體的인 舞臺裝置다。좀 仔細히 드러가보자 이들의 演技와 裝置는 朝鮮劇界에 最高水準에 올녀놓을수잇다。

守錢奴와가튼 古典劇을 上演하는데 現代의 世界觀人生觀의 옷을입히서 演出하데 얼마간 成功하엿다고보나 現代의 諸事情 諸條件에 合致시킨다는點에잇서 不足한感을 갓게하엿다。勿論모리엘의戲曲은 다른古典劇과달라 自然主義的色彩가 濃厚함으로 오늘의 우리가 그대로 보드라도 큰無理를 感치안흐나 모리엘時代에잇서 알파곤은 節約과 商業과 高利에서 나는 貪慾、嗇吝가운데서도 嗇吝이 더크게作用하엿겟스나 오늘의 알파곤은 嗇吝보다도 貪慾이 더作用하는 타입을 맨드럿드면한다。

라디오

二十九日(木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별이야기』(二) 物故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氣候이야기』 司空桓
◇同七時三〇分 講演『模範農村訪問하고서』(一) 京畿道農會技手 南基徹
◇午後八時 洋樂 一、나를울녀다오…헨델作曲 二、悲哀…슈만作曲 三、谷間의[illegible] 四、비오는밤…李興烈作曲 五、라스파뇰라…키아라作曲 六、사랑의노래…브람스作曲 安[illegible] 피아노伴奏 李興烈
◇同八時三〇分 音律『華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映畵이야기『언더우에 소나무』 朴[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名)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八時(大) 觀艦式實況放送
◇同九時(東)連續探偵드라마(第一夜)

三十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大)經音樂 一、流線型자스 二、東京의夜景 三、木曾노나가노리상 四、야쏘상 五、鹿兒島小原良節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作曲編曲及指揮 服部良一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明朗한生活은明朗한마음에서』 朴貞淑
◇同三時一〇分 (東)敎師時間
◇同六時〇〇 兒童劇 (第一放送에依함) 『알라딘』全一景 貞姬……韓[illegible] 順玉……金鈴蘭 惠順……韓[illegible] 貞姬어머니……李白[illegible] 뒷집할아버지…金銀星 두루미 指揮 金相德 效果 劉根春 伴奏 金德子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敎育勅語渙發日을當하야』 第二高普 鄭義澤
◇同七時三〇分 講演 模範農村을訪問하고서(二) 京畿道農會技手 南基徹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됴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公道難 (나)唱劇調…春香傳中 獄中歌 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丹楓祭 朴英鎬詞 金松奎曲(金、李) 二、앞어달나우요 同右(李) 三、꼿서울 朴英鎬詞 古賀政男曲(金) 四、感激의그날 朴英鎬詞 金松奎曲(李、金) 五、離別前夜 同右(李) 金海松 李蘭影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韓文惠
◇同九時一〇分 압산타령 一、압산타령 二、뒷산타령 三、경발님 四、산염불 金順紅 金蘭香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十七) 鹽谷榮
◇午後〇時五分(大) 輕音樂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同二時 家庭講座 吉田直
◇同六時 이야기 宮村[illegible]作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河野[illegible]三
◇同八時(大) 라듸오小說 千葉[illegible]
◇同八時三〇分(東) 詩吟 雨宮[illegible]
◇同八時四〇(東) 獨唱 米川文子外
◇同九時(東)(連續)探偵 드라마(第二夜) 土井江南外

三十一日(土曜)

◇午後〇時五分 雜歌 一、[illegible]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女性의體位向上에對하야』 梨專講師 朴[illegible]愛
◇同六時 코―넷獨奏와피아노獨奏 코―넷獨奏 WE노―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피아노獨奏와伴奏 헬렌、쫑쓰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朝鮮日報社 咸尙勳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同七時三〇分 兒童劇『김첨지와 허수아비』一景 配役 여우甲…朴[illegible] 同乙…孫允烈 同乙…朴景順 김첨지…尹長燮 양서방…朴民化 童心會 演出 朴興珉 伴奏 陸好吉 效果 効果班
◇同七時五五分 피아노獨奏 一、아침의祈禱……메진作曲 二、悲哀소나타…베―토作曲 尹瑜善
◇同八時五分 野談 第一樂章〃까마귀의꿈〃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女聲合唱 一、二部合唱 로―렐리―미…질헬作曲 二、獨唱 매기의追憶…버러필드作曲…鄭玉珠 三、二部合唱 자장가…라우벨트作曲 四、二重唱 가을밤…윌이암스作曲…朴玉珠 李順福 五、二部合唱 시골音樂隊…웨―버―作曲 京城保育合唱團
◇同八時五〇分 大笒과洋琴 피아노伴奏 李興烈 佛과打令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東) 和洋樂
◇同六時二五分(京) 講演
◇同七時五〇分(東) 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連續探偵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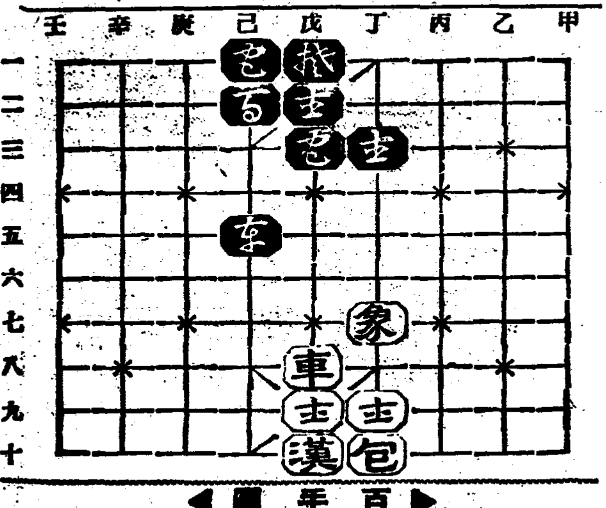
曆

十月三十日(金) 陰戊戌九月大(十六日) 乙酉·水·婁·閉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陰二十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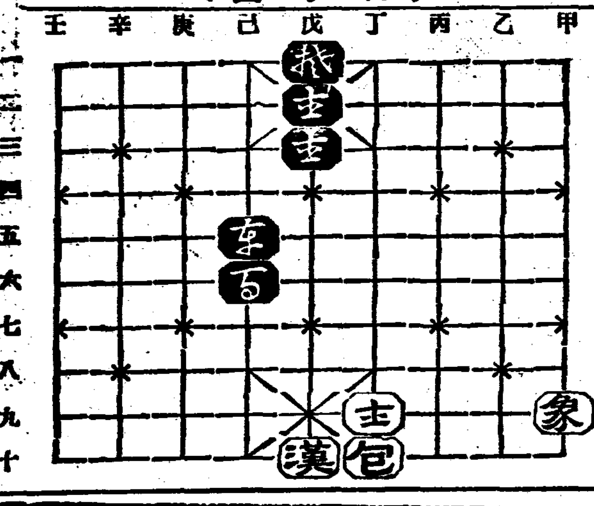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

漢先手 兵一減 李在鳳
楚 盧世禎

◀九十手圖▶



◀百手圖▶



戊八車―戊六 丁一包―丁九打士
己四包―庚四 戊四車―戊三打包
戊六車―戊四 丁三包―戊三打車
己一包―丁一 戊九士―丁九打包
丁七象―甲九 庚四包―己六

讀書할때!

戒心해야할눈의疲勞

燈火를親하야 讀書할 씨―즌이다 그런데過度의讀書는 視神經을 疲勞식히고 照明의不完全은 眼疾의根本原因이되는것이다……

長時間에이르는 讀書나、執務照明의 不完全한室內에서의細少한事務가 눈을압흐게함은 再言을不許한다 그러면最近의照明學은 特히夜間에讀書나 編物에는最低五百룩스의明度를必要로할것을力說하고 또 時間的으로는 連續一時間以上은有害하다고 絕叫하고잇스나 우리의生活에잇서서 果然이것이 文字 그대로의實行與否가 大端히疑問이다。正當한眼科藥에 依한눈의休養과 視力補强을切實히要求하는 故로讀書家와 스마일이 緊密한關聯을가진 때문이다。

가장信賴되는
眼科治療劑

スマイル
스마일

―스마일―은 眼科領域에잇서 最新學理와處方에 따른 新眼科藥으로서、그殺菌、收斂、消毒의各作用의 優秀함은잘結膜炎、角膜炎眼精疲勞、도라홈 充血等을 快適히奏効하게함과가티、獨自의健眼作用은 視力을强化식히고、눈에 榮養을補給하야 瞳孔의明朗性을 賦與한다 即一劑로서 眼疾治療視力强化、瞳孔의 明朗性을資料하는 近代人의眼科藥이다。

―또―는 容器의 科學的完全性은 一般眼科藥에서 보는 藥液中에夾雜物(티)을섞이기게한것가튼것은 絕對로업고 恒常新鮮한澄明度를가저 長時日을지나도 藥液이조곰도變化치안코、快適히點眼할수잇는 特色이잇다。執務家、讀書家運動家의視力保護에 各種眼疾의治療에 스마일이斷然好評을밧고잇슴도實로 偶然함은 아니다。

至便한新容器

優美嶄新또는携帶至便、隨時點眼할수잇는 自働式點眼容器다 銀色의 뚝겅을열고、容器를垂直으로 眼瞼에닷지안케손끗흐로가볍게底部를툭툭치면一滴、一滴、시원하게極히衛生的點眼이된다。

醫學博士 中村榮氏
醫學博士 仁藤隆作氏 推奬

(定價) 二十五錢·四十五錢
全國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다

總代理店 東京 大阪 玉置合名會社

都市美觀妨害라고 四百餘戶撤去令

一朝에依接할곳조차일케된 牡丹江千餘同胞彷徨

【牡丹江】목단강경찰서(牡丹江警察署)에서는 당지 구시가 조선인민회부촌 바락사백오십호의 인구일천삼백여명에 대하야 도시미관을 손상한다는 리유로 동시가에서 일리가량되는 당지비행장부근으로 퇴거명령을 나리엇다한다

그리하야 그날그날의 로동으로 일가의 호구를구하든 세민들은 일간초옥일망정 일조일석에 일로 풍찬로숙에 방황하게되엿다는데 설상가상으로 근일와서 통한기후는 갑작이 치워지면서 대륙성기후의 본격적 엄동의전초전을개시하게되야 일천삼백여명의 생명은 풍전등화와가티되엿스나 구제할 방도는 업다고한다

居留民會創立記念

【奉天】봉천거류민회(奉天居留民會)는 명치사십삼년에 조직하엿는데 이래삼십년간을 만주에서도 특수지인봉천에서 면간 친목내지행정(行政)에 헌한사무에이르기까지 충실히 다하여오든바 지난시월이십오일로서 창립삼십주년을 마지하게되엿슴으로 긔념식(記念式)을 오전십일시부터 총령사관구내(總領事館構內)에서 성대히거행하엿는데 부내각공로자(部內各功勞者)의표창과 각방면의 축사(祝辭)가 잇슨후 오후한시반경에 폐회하고 뒤니어 간단한연회(宴會)가 잇슨후 세시에 폐산하엿다한다

忠北稻熱病被害 二百三十餘萬圓

被害面積도二萬九千餘町步 一般農家不安甚大

【淸州】풍수해후에 닥처온충북의도열병피해는 도당국에서 팔구량일간의 실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피해면적이 이만구천륙백여정보로 총경작칠만일천백구십정보일단보에대하야 사할일보확리에달하며 피해금액은이백삼십사만 이천삼백십오원으로 피해석수는 칠만팔천칠십사석인바 재래조사방법에의한 수확예상고를 작년실수확에 비한다면 약십오만석의 감수를보게되리라한다 더욱이 풍수재와도열병피해로 수확개무를 예상하는농가도 잇슴으로 수확후즉시 쉬망결법을 당할농가도 불소하리라고보고잇다 도열병피해를 군별로 적으면 다음과갓다

郡別	被害面積
淸州	七、七一〇町六
報恩	四、三七〇、二
沃川	一、九〇二、〇
永同	一、八九五、二
鎭川	一二〇、〇
槐山	二、一四五、三
陰城	四、〇〇〇、〇
忠州	六、三〇〇、〇
堤川	六三〇、三
丹陽	五四九、九
計	二九、六二〇、五

損害도約五千圓

乘客二名은重傷 列車衝突事件詳報

【馬山】지난 이십오일밤 구마산역(舊馬山驛)을떠난 이백십오호 렬차와 의령(宜寧)화물자동차가 부정(富町)둘째길목에서충돌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이제 그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날밤 열시오십분경에 화물을만재한 전긔자동차를 운전수 김우명(金又命)(二三)이가 운전하야 의령방면으로 달리든도중 맛침그곳에 건목이 끈기지안엇기에 통과타가 그가티 진행렬차에 충돌이되여 처참한변을 일으킨것이라는데 렬차측으로서는 손해가 희소하나 자동차측으로서는 약사천칠백여원의 손해를 당하엿다고하며 타고가든 사람들도전신에중상을 당하야 방금도립의원(道立醫院)에서 응급치료를 밧고잇스나 생명이위독하다는데 그들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荷主 宜寧邑內 所然恒(二〇)

營業主宜寧邑內 崔載洪(三〇)

運轉手宜寧邑內 金又命(二三)

大同社本部에서 擴大執行委員會

【大田】형평사(衡平社)는 총본부를대전으로 이전한후 형평운동에분다한 노력을계속하야 나려오는바 오는 십이월륙일 오후두시부터 총본부회관에서 전체확대집행위원회를개최하는바 금번은 특히중요토의사항이만흐며 칠십여명의위원은전원이출석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虛榮에달뜬女性 畢竟警察身勢

【平壤】평양부내 인흥리(仁興里)김해지(金海知)(二一)라는 녀성은 자긔의 남편이 사리원(沙里院)에잇슴에 불구하고 자긔의 미모와 허영에 달떠 남편을버린채 평양에와서 양장을 하고 반들거리면서 내음새를 피우다가 이십이일오전열시경 가튼동리 전전(田畑)이라는 사람의집에드러가 현금십일원오십전과 이천삼백삼십원의 저금통장을 절취하여 허영자금으로 현금은소비하고 통장을불사러버렷든것이 판명되여 이십일대동서에체포되엿다

혜지는 미모를 미천삼아 근처의 남자들을 수어시 난봉내인 대표적불량녀모던녀성이엇다 한다

◇湖南蹴球大會 (上) 入場式光景 (下) 同優勝팀一同 (本報木浦支局主催)

機關車破損한 心臟튼튼한牛公

【平壤】대담한 소가 렬차를 파괴한 소동이 일어낫다 이십칠일 오후세시경 경의선(京義線)경성행 백이십이렬차가 서포―서평양(西浦―西平壤)간을 진행중 렬차압을 건너가든 우차를 긔관사가발견 급정거를 시키엇기때문에 소와 우차는 손해가 업섯스나 급정거로 인하야 긔관차의「캅프라」가 파손되여 운전불능에 빠저 부득이렬차를 둘에난호아 사람들이밀어서 서평양역구내에까지 운전하는 큰사고를 만드럿다 이때문에 상렬차는 이십삼분 [illegible]자는이십오분 연착하여 일대소동을 일으켯다한다

三氏滿期出獄 城津農組事件의

【城津】성진의 리규승 김채락동(李奎承 金采樂 등)등은 소화륙년구월 성진농조사건에 피검되여 일년이상을 동서류치장에서 고생하다가 청진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여 사개년의형(이개년은 미결구류통산)을 밧고복역하든중 지난이십오일 형기만료로 출옥되여 피검이후 만오개년만에 각각 자택에 도라와정양중이라고한다

地方發展을目的한 三地方懇談會 代表五十名參席

【全州】전북삼도시(三都市)의번영과 친목을목적으로 매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주 군산 리리삼지간담회는 지난이십륙일오후일시에 부내이엽(二葉)료정에서 각지대표오십여명이 참석하고 다음몃가지를 협의한바잇섯다고한다

一、全群道路路面擴張完成의件

一、群山第二期築港促進에關한件

一、群里驛列車運行連絡問題의件

一、特殊工業에對한電力料減下要望件

一、工業用水問題에關한件

愛息의肺病悲觀 老婆鐵道自殺

【平壤】아들의 중병을비관하여 철도자살을 해버린 가련한로파가잇다 이십칠일 오후일곱시십오분 구백오십구호렬차가 북행하든중 평양부내서성리(西城里)부락근처선로우에 로파가안저잇는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거를시키엇스나 치원족이고마럿다 중내로파를 조사한결과 이로파는 부내암정(岩町)사십번지 리귀태(李貴泰)의친모 리씨(李氏)(六〇)로 자긔사랑하는아들이 폐결핵에걸리어 고생하는것을 참아볼수업서서 자살한것으로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엿다한다

本報木浦支局主催 第一回湖南蹴球大會

大盛況裡에遂終幕

【木浦】긔보=본보목포지국주최로 제일회 호남축구대회(湖南蹴球大會)를개최한다함은 이미루보한바어니와 주최측에서 그동안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사일 오후한시부터 목포공설운동장에서 순서(孫陵敏)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야 동대회는 공전의 성황으로 량일간계속한바 이십오일오후오시반에 무사폐회하엿는데 최후의 우승은 광주(光州)에서 참가한 대동(大同)팀과 광주축구팀이 굿센다리와 씩씩한 마음으로 싸우게되야 수천관중의 인긔는 자못비등하엿든바 영예의 우승권은 마침내 광주축구팀이 획득하야 본사기증의 우승긔를 바덧다한다

귀먹어리女子 貨物車에橫死

【雄基】웅긔읍내 웅긔동(雄基洞)배기번지에사는 배히삼(裵希三)의처 리씨(李氏)(二二)는 지난 이십팔일 구차한 살림에 떼나무를 장만하라고 몽리산에가서 솔잎을 긁거가지고 웅긔역에서 약이키로 지점되는 보통학교앞 선로를 횡단하야오다가 갑작스리 달려드는 라진행 화물렬차에치여 무참히 죽고마럿다는데 그는 귀먹어리신세로 긔차의 경적소리를 못들은때문에 그와가티 참변을당한것이라고한다

數千漁民生命線 河源里漁場問題

個人의獨占을두리워反對陳情 當局의處理如何를注目

【濟州】전남제주도 중문면하원리(濟州島中文面河源里)사는 동민을 대표하야 김근오(金根五) 지항순(池恒連) 량씨는 이십이일래광하여 도당국과 어업관계 조합등을 방문 하고 탄원진정한바잇섯는데 그진정내용을 듯건대 전긔동민들은 약삼백호가량되는부락민으로 수백여년전부터 반농반어의 생계를 의지하야 사라오는 유일의생명선이라고할 문전어장을얼마전에 동도서귀면서귀리(同島西歸面西歸里)에 거주하는 모일본내지인이 동어장의어업권을 엇기위하야 당국에면허원을 제출하엿스므로 만일허가될렴려하야 그와가티 진정운동을 하얏다는데 동어장이 일개인의소유자 되는때에는 수백년래연고자를 무시하는동시에 수천명주민의 생도가 업게될 문제이라고 당국의 처사여하를 크게주목중이라고한다

船長과船員이共謀 大大的砂糖密輸

警察에發覺嚴重取調

【木浦】지난이십륙일오후 목포(木浦)경찰서고등계에서는 밀수선구행환(密輸船久幸丸)선장 내산태길(內山太吉)과 동선원 조긔석(曹)하석(假名)등을 체포하야가지고 엄밀히 취조를 개시하고 잇섯다 사건의내용은 경찰이비밀에부침으로 알수업스나 듯는바에의하면 전긔내산태길이 주모자가되여 약이개월전부터 대련(大連)과 목포를 중심으로하고 목포에서는 생선(生鮮)을대련으로 대련에서는 설탕(砂糖)을 목포로 대대적밀수행을 하든중 지난이십오일에도 대련에서 설탕 약삼백〃가마니〃를 전긔구행환에실고 목포에왓다가 그와가티 목포경찰 서원의 손에 체포된것이라는데 지난구월중에도 대련방면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다량으로 밀수하야가지고 목포에왓다가 체포코소되야 겨우일단락을 지은이때에 또다시 전긔와가튼 대량적밀수사건이 발생하야 목포경찰서의신경을 예민케한다는바 목하동경찰서에서는 관계자일동을 체포유치하고 엄중취조중인바 사건은 점차 확대될 모양이라한다

地方人事

▲曾永恩氏(朝鮮日報社主催音樂競演大會入賞)人事次本報木浦支局來訪

▲徐啟康氏(西朝鮮搜當監理師)巡廻中 本社瑞興支局來訪

▲李謙魯氏(沙里院監理師)巡廻中同上

▲田中傳次郞氏(前淸津警察署長)全南警察部高等課長으로榮轉人事次本報淸津支局來訪

▲柳重根氏(滿洲國濱江省密山縣平陽鎭船口普通學校訓導)同校五六學年生徒二十三名引率코修學旅行次로來淸同上

▲吉岡三浦氏(忠北內務部長)新任人事次 本報淸州支局來訪

▲隅田保次氏(忠北地方課長)同上

▲松田爲久氏(平壤專賣局販賣課長)榮轉人事次同上

▲安田宗次氏(忠北警察部長)新任人事次同上

▲大江亨氏(參禮公立普通學校訓導)新任人事次本報參禮支局來訪

▲山地淸之氏(忠南警察部長)去二十六日午後五時五十五分着 車로 着任

▲李泰寧氏(坂谷生命大田出張所長)轉任人事次 本報大田支局來訪

小作料減免中心 旱害對策을協議

大地主를모아作料減免率決定 黃海道農務課에서

【海州】황해도지방에는 지난번 미증유의대한발로말미암아 패답혹은 대작(代作)등으로 그위긔를구출하려하엿스나 그도뜻대로되지아니하야 큰참해를입게되여 경작물(耕作物)의전부의큰실 혹은 경작물의일부박게 수확치못한농가가 적지안흔수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한다

그리하야 황해도 농무과(農務課)에서는 이러한농형(農形)에따르는 소작료감면(小作料減免)을 중심으로 소작쟁의가 속출할경향이 농후함으로 수일전 동척(東拓) 조선흥업(朝鮮興業) 선만개척(鮮滿開拓)등의 회사의농작경영관계자 십여명을 소집하야도청회의실에서 한해대책협의회(旱害對策協議會)를 열고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第十六條 不可抗力에因한收穫高의 著한減少가잇는때에는賃借人은 賃貸人에게對하야 小作料의減免或은免除를申請함을得함」

이러한법규를 참작하야 다음과가티 감면(減免) 혹은면제키로 결정하엿다한다

不作의程度	畓	田
三割五分減	二割六分	二割七分
四割五分減	二割九分	三割五分
五割減	三割七分	三割六分
五割五分減	四割六分	四割三分
六割減	五割七分	四割六分
七割減	六割四分	五割七分
八割減	全免	全免
九割減	全免	全免

그런데 이것은 도내전반에궁하야 실시되는것이아니라 한발에의한 피해가 우심한 瓮津 信川 黃州 平山 延安 谷山 安岳 鳳山 載寧 殷栗 延白 金川 松禾 등십삼군을 긔조로한것이라한다

泗川敎育界의恩人 崔寅洙氏記念碑

廿五日除幕式擧行

【泗川】교육계의 은인이요 사회사업에 공로자인 경남사천군 사남면죽천리(泗南面竹川里)고죽포최인수(故竹圃崔寅洙)씨의 기념비건설계획은 지난이십오일 오후일시에 초대를 바든 각계대표수십명의 참석과 동면유지 이백여명참집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엿다는데 고죽포최인수씨는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인 그때부터 시대의순조와 신사조의 변천을통하게 깨다라 바잇서서 신교육을 수립시키지 안흐면안될것을 깨다른 남어지 수천인의 반대도불구하고 현사남보통학교를 단독으로 창설하여 정신적 물질적 유형사업에 공헌이막대한분으로 씨의공적을 영원히긔념코저 동면유지의 발긔로 긔념비건설회를 조직하야 총공비일천여원을 예산하고 긔공중이든바 그준공이 갓낫슴으로 전긔와가티 성대한제막식을 거행케된것이라한다

現金千圓紛失 海州―海州港間에서

【海州】대금의분실사건―지난 이십팔일오후 두시경 해주군해주읍룡당리(海州邑龍塘里)대포공무점(大浦工務店) 점원으로잇는 안야팔랑(岸野八郞)(三七)은 해주와 해주항(海州港)간의이동도로 부근에서 현금구백십오원과 소위체(小爲替)팔십오원 도합천원을 분실하엿슴으로 그「대포공무점」에서는 해주서(海州署)에신고하엿다한다

鑛中岩石崩壞로 坑夫一名卽死

【興上】지난이십일오전팔시경에 함남정평군고산면풍송리(定平郡高山面豊松里)삼릉광산(三菱鑛山)에서 광부일명이 즉사한사건이잇다 동군고산면 풍송리(高山面豊松里)한대우(韓大遇)

殷栗

經濟大講演會

▲時日 今月三十一日

▲場所 殷栗公會堂

▲演題 經濟界의動向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主催 殷栗商務協會·朝鮮日報社殷栗支局

愛慾의彼岸 【13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죽자. 역시 죽어버리자. 내 죽음이 도로여 안해와 혜련을 동시에 구원하는 긔연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 변변치못한 목숨으로 할수잇는 유일한 써비스일는지도 모른다. 다만 죽어버리면 안해의 영혼을 파먹는 미움도 죽어버리고 혜련의 얼매는 그리움도 죽어버릴것이아니냐」

강은 이러케 생각할 때에 일종 거룩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꼇다.

강은 제가 일생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엿다. 잘한 일, 내 노흔것이 하나도 업슴을 발견할 때에 강은 깁게 한숨을 지웟다.

강은 제가 그 동안에 써 노흔 시와 글을 생각하엿다. 그 중에 어느것이 인류에게 업서서는 아니될 보물인고? 강은 또 한번 한숨을 지웟다.

일생도 나지 거의 지나고저녁 때를 바라보는 그, 머리에 센 터럭조차 히긋히긋 보이기시작하는 그, 평생에 바르게살려, 올흔 일을 하랴고 한 그, 그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 아모것도 남김이 업고, 현재의 저를 볼때에 수십년전과 꼭 마찬가지인 사욕과 번뇌의 덩어리인 그, 사회에도 쓸데업고, 가정에도 쓸데업는 그, 이러한 그를 발견할 때에 그는 눈에서 줄줄 눈물이 흘럿다. 눈물이 흐를수록 더욱 설어지고 설어질수록 더욱 눈물이 흘럿다.

강은 흐르는 눈물을 막으랴고도 아니하고 솟는 설음을 누르랴고도 아니하엿다. 울어지는대로 울엇다.

강의 울음은 차차 소리를 내기 시작하엿다. 강은 울음人소리 나는것을 참으랴고도 아니하엿다.

강은 이모양으로 꿀작이에 울음人소리가 울리도록 울엇다. 얼마를 울엇는지 모른다. 만일 영원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일행이 보이지아니하엿던들 강은 언제까지나 울엇슬는지도 모를것이다. 사람들이 오는것을보고 강은 울음을 삼켜버렷다.

그 일행이 지나간뒤에는 다시 종용한 꿀자기, 물人소리밧게는 업는, 구름人그림자밧게는 업는 꿀자기가 되엿다. 강은 더 울고시펏다. 울고울어서 전신을 생명을 눈물로 다 녹여버리고시펏다. 이 천지를 다 울어서 녹어버리고시펏다. 그때에는 다시는 눈물이 나오지아니하엿다. 가슴에는 울음이 꽉 찻는데도 울음보다 더 괴로운 무엇에 눌려서 소사오르지못하는것 가탓다.

다만 가슴만 답답하엿다. 팔다리에는, 도모지 기운이 업섯다. 신경의 움지김도 다 첫지되것 가탓다. 다른것은 다죽고 숨결을 의식하는 마음만이 가물가물 살아잇는것 가탓다. 산, 바위, 나무, 풀, 이런것들도 모도다숨결들이엇다. 제 눈 아페 노힌 손과 다리도 평생에 처음 보는 흉물스러운것이엇든듯하엿다.

「이 손人가락, 이 손톱, 이것이 내것이던가. 내게 언제 이런것이 엇구섯던가」

하고 강은 제 두 손, 열손人가락을 펴들고 뭇끄럼히 들어다보다가 징그러운듯이 떨어터려버렷다.

도모지 아모것도 아까운것이 업섯다. 원하는것이 업고 하고시픈것이 업섯다.

몸도 마음까지도 다 시들하고 하늘, 산도 다 괘니 잇는 심거운 존재만 가탓다. 만물이모도다 얼이 빠지고 존재의뜻을 일흔것 가탓다.

「살고시픈 생각조차 일허버린 이 마음」 강은 이러케 중얼거렷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업는나」

하고 강은 두 손으로 머리를 쌋다.

「죽어버리자. 살아서 쓸데업는 생명을 끈허버리자」

·이러케 생각할 때에 혜련을 사랑하던것이나 안해를 미워하던것이나 다 한바탕 꿈만갓고 우서버릴 어리석은 일만가탓다.

「내가 인제 번뇌를 해탈한것인가」

이러한 자만심의 엄이 도다날때에 강의 마음에는 다시번뇌의 구름이 일기시작햇다. 마치 심술구진 신이 겨테지켜잇다가 강을 조롱이나 하는 모양으로.

강의 마음人속에는 다 혜련의 그림자가 나섯다. 살그먼웃고 제 가슴에 매달리는 혜련의 모양.

「웃」

하고 강은 제 자신에 대해서 분개하는드시 주먹을 불끈 쥐엿다.

옷감 韓靑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늑막염 꼭낫는다! 肋膜炎에 百發百中藥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二二二九九番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糖衣カハーカハ錠 服用シテ神速ニ奏功スル最新治淋藥 (全國有名藥店에잇소)

弊店創立五週年記念 大景品付大賣出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クロム側懷中時計 クロム側腕卷 十八金KK側腕時計 十八金KK懷中時計 流行の王 時計の王 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新職業 電氣醫療師養成 時代的電氣 醫療學全科 ◎責任傳授 朝鮮唯一 講習學費 最廉오라 特別臨時講習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九四 內容規定書無代星

金物問屋 家庭用金物 アルミ製品 琺瑯鐵器 大阪市南區順慶町二 中村理一郎商店

便紙라면 무어나 다 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日本一完備 手紙大寶典 手紙時書 これは便利だ

新時代에合한 新講義 組合式과新案書式의長을取入하야 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字くづし辭典 願屆書き方 積文堂本店

無代進呈 實物縮寫 大景品

經濟解說 產調答申檢討 (1)
農產價格補償問題
◇洪鍾仁

農村과 都市間에 經濟的으로 依存的關係에있어서 價格上依存關係가 不均衡한故에 今日都市產業의 發展에 反하야 農林業의 一般的不況이 있는것은 論者가 한가지로 論하는바이나 그러나 實際에있어서 이와가튼不均衡을 是正치못함에 都市對農村의 若干價이있는것이다 그럼으로 今般產業調查會의 答申案에나타난바 여러가지 新興產業集中、農林業에 原料要求하려함에는 農村에 原料供給者의 地位를 擁護할만한 組織的 施設을하는同時에 農林業者한一分子로서의 總合이主產業만을 어떤程度의 發達을 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의 現在의產業狀態로서는 거이不可能에 갓가운 일임으로 最少限度의補償問題가 일어나는것이다 더구나 新興產業이라는것이 國家의 必要에依한 國策產業이라는것이라면 도움이거니와 그普通產業은 營利機關인데다가 國家的援助便益을 直接 擴充其他여러가지로맛고 간접으로는 原料供給에 官力에依한 獎勵로 獨占的인 有利한 條件을 가지게되는우에 다시 企業上利潤을 가지게되는形便이니 農林業者에 對해서도 그만큼、企業上安全이 確保되여야 할것이다

×

이런意味에서 一般企業에있어서 會社들은 勿論이나 植民地朝鮮에 있어서도 相當히 高한엿다 農業에있어서 諸共同販賣도 그러한 一例이엇고 年前 朝鮮에新時代의 棉花栽培計劃도 그러하엿고、도近年의 桑樹栽培等도다 그러한例에빠지지 안흘것이라할것이다 當時의 獎勵는 어느程度까지는 半強制的인것도 잇섯다 그만큼 農民의 利益이保障되엿다면 몰라도 그러치도 못한것이다 그럼으로 새로운 產業에 依하야 命令에 依한本意아닌 農林省、特히 多數의 農民의利益을 爲하여 農業者인 農民의 最低價格의 補償될것이다

×

그리고 補償制度와 同時에 組合의 必要할것이다 農民의自主的組合이 法的으로 成立하야 農民의自主的인 經濟의 利益을 擁護하고 도農產物의 處理、도金融의 組合을 가지게되면 農民의 信用、一體的인 總合體로써 組合의 經濟를 確立하야 農民의利益이 뒤지안코서는 農村에 效果를 보기 어려울것이다 現在에도 農村에는 金融組合이잇고 또 產業組合이잇다 그러나 金融組合은 農民中에서도 多少라도 擔保信用이 잇는 者가 利用할수잇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農民 自主的利益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組合의 形成에 잇서서는 이 一點을 中心한 地方의 產業組合을 中心한 形態를 가지게되는 組合이 아닐가 近者에 殖銀의 創設이 잇게되나 今後 金融組合에 屬할 것인가 產業組合에 屬할 것인가 그 役割은 아직 試驗中이다 (未完)

自管比率問題로 委員會紛糾豫想
朝鮮凶作이니 四三%配定無理
附則에依해變更要求

農林省米穀局에서는 新米出廻期를앞두고 問題의 自治管理法에 依한統制命令發動 準備를 着着進行中인데 現在 十一月中旬까지에 大體準備도 完成되겟스며 同時에 自治管理委員을 새로 任命하고 新米穀年度最初의 自治管理委員會를 招集하야 發動期日에 管理數量、管理配定、日本內地比率等을 決定하기로되엇다. 그리고 自治管理委員에는 大體現米穀統制委員이 그대로 任命되리라하는데 그管理法의 附則에 依하야 決定되어잇는 日本內地、朝鮮及、臺灣에 對한 配定比例는 附則대로 決定할는지 안할는지에 對하야는 新米의 收穫豫想이 朝鮮에잇서서는 昭和四年以來

大凶作 이라傳하며 最近에 이르러서는 朝鮮의 稻熱病의 被害가 二十餘萬圓에 達하리라고 傳하게되야 委員會에잇서서 比率의 決定이 非常히 困難한 問題가 되리라고 豫想되다。

即 附則에는『第四十一條 第一項에 規定된 一定數 以下의 日本內地 朝鮮及 臺灣에 對한 配定比例는 當分間 同條第三項의 設定에 不拘하고 日本內地 百分之三十五 朝鮮百分之四十三 臺灣百分之二十二이다 但政府는 日本內地 朝鮮 臺灣의 米穀收穫의 豊凶에 依하야 米穀自治管理委員會에 諮問하야 이를 變更하는것도 無妨함』이라고 하얏스며 朝鮮의 比率總高는 收穫豫想에依한需給推算의結果 過剩米는 四百九十萬石으로보이어 日本內地百七十萬五千石 朝鮮二百十萬七千石、臺灣百七十萬八千石이되는데 日本內地

朝鮮은 今年부터 調查方法이 變更되엇기때문에 從來에 比較하기는 困難하며 大體에잇서서 前年에 比較하야 一割三分 即 三百餘萬石의 減少인 凶作인데다가 稻熱病이 全朝鮮的으로 發生하야 被害數量을 除하고도 被害面積이 二十二萬五千町步에 達하고 그被害는 二十數萬圓에 達하리라할 地는 豊作이며 臺灣도平年作以上으로 特히 蓬萊米는 非常히 增產이다 이에 反하야 朝鮮에對하야 附則의 比率대로 百分之四十三을 配定하야 二百十萬石餘의 自治管理를 시키는것은 朝鮮의 米穀市場을 壓迫하게되는것이다。朝鮮總督府當局으로서는 이를 承認할수업슬것으로 承認할수업을것으로

委員會 에서 이것이問題될것은 當然한일이다。 그리고 附則의 後段에『米穀收穫의 豊凶에 依하야 委員會에 諮問하야 이를 變更하야도 無妨하다』하얏슴으로 朝鮮側은 이를 根據로 하야 强硬히 比率의 變更을 主張할것으로 보이는데 日本內地當局에서는 從來外地米의 日本內地移入에는 極力減還方針으로 固持하얏고 今回의 自治管理法도外地米의 統制를 主眼으로한다고까지 傳하고잇슴으로 今回의 朝鮮의 凶作은 附則比率의 變更을 要求할 程度의것이아니라하야 二百萬石程度의 管理는 當然必至의 것이라는 意見을 堅持하고잇는 만큼 相當히 論議가 激化되리라고 豫想되며 今後의 推移는 자못注目되는터이라한다

具體的實行코저 急速工作을協議
產調答申書正式提出

產業調查會의 答申書는 調查會幹事의 字句修正을 終了하고 總督府에 正式으로 三十日提出하얏슴으로 總督府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產調關係官會議를 開催하고 大野政務總監 穗積殖產局長以下 委員幹事의 各關係官이列席하야 答申을中心으로서 具體的實行問題에 關한審議를行하고 工作할茂山開發、起業金融問題、重工業問題等에就하야 協議키로되엇다 此等의 決定을待하야 具體的工作에 入할豫定이라한다

茂山鐵鑛問題 最後的決定
南總督視察로

茂山鐵鑛의 開發問題에 關해서는 石田礦山課長이 三十一日午後三時渡東하고 穗積殖產局長은 二、三日後에 總督渡東하야 商工省을 爲始하야 日銀側과 折衝하야 開發에關한 具體的協議를 行하기로 되엇는데 이미 右에關해서는 日銀과 總督府間에 大體의 諒解가 成立되고 製鐵所도 淸津에 設立하기로 諒解가 되어잇는모양인데 南總督 今回의 北朝鮮 視察로 右에關한 決定을 지어 總督府로서의 方針을 說明하고 그結果에 基하야 大野政務總監은二日夜發 渡東하야 드디어 最後的 折衝을 할것으로 보인다

製造煙草賣渡高

專賣局十月中旬 製造煙草賣渡高는

北朝鮮鰮資金 三百九十萬圓

今年度의 北朝鮮의 鰮漁는 最近 最盛期에들어가 活況을 呈하고잇는데 이에따라 同資金의 貸出도 漸增傾向을 보아 最近의 貸出額은 殖銀으로부터 直接 水產組合에 貸出한 前渡資金이(單位千圓)

	貸出金	限度
江原	五四〇	一、〇〇〇
咸南	一、三〇〇	一、三〇〇
咸北	一、一〇〇	一、一〇〇
合計	二、九四〇	三、四〇〇

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江原이七萬圓 咸南이七十萬圓의 各各減少를示하고 잇는데對하야 咸北은四十萬圓의 增加로 合計에 잇서서는 三十七萬圓의 減少를示하고잇스나 咸南은 이미 五十萬圓의 限度擴張을하고 咸北도 近近三十萬圓의 限度擴張을 하기로되엇다 이外에 漁具購入資金에 適當한 仕入共同兩資金의 融資額은 合計百六十萬圓에 達하엿다

經濟寸鐵

○ 茂山鐵鑛問題、起業金融問題等을가지고 政務總監이渡東折衝하리라고

○ 產調答申에基하야 急速工作을 차차協議 實行에移할모양

○ 文字그대로 朝鮮은開發되고『躍進朝鮮』이 나타날런가

○ 이조로潟光의一面 陰影이 農民大衆에게 가리지안키를祈望

起業金融機關創設
明春에는實現될모양

起業金融問題는 產業調查會를 動機로 急速히 進展을 示하야 新起業金融機關創設은 意外로 速히 明年上期中에는 具體化하게되엇다 新機關은

一、現在 殖銀、朝銀、東拓三者中의 金融部門中의 起業關係分을 切離하야 合同케할것

一、特殊金融機關으로 資金取得에 關해서도 債券發行等의 特權을 附與케할것

一、同機關에서는 問題가되어잇는 鑛業、水產、金融의 受信上에도 特殊한 施設을 講究할것

一、新機關은 資本金三千萬圓 乃至 五千萬圓의 大會社로하야 特殊法規에依할豫定

大體 新機關의 概要는 右와如한것인데 이에對하야 林財務局長은 如左히 말하엿다

起業金融問題는 압서 總督府로서도 相當히 愼重히 研究하고잇섯든것으로 產調에서도 偶然히 强調된것이다 可及的 速히 創設할 意向이며 明年의 議會後에는 具體化할것이다 創立에 對해서는 準備委員會가튼것을 開設할른지 그與否는 不明이나 如何튼大綱寒은 서잇다 渡東後 中央과도 折衝하게될것이다

米日爲替保合

【經濟二十八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實二十八弗六十仙이오 買二十八弗五十九仙이다

東京爲替(二十九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爲替換算率變更
一圓=四法四分一

【京城二十八日發同盟】大藏省은 法貨의 平價切下에 伴하야 爲替換算率을 變更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輸出品手形其他의 淸算貨幣의 取引을 自今 一圓에 四法四分之一로 換算한

大阪、神戶市場 觀艦式으로休會

【大阪電話同盟】二十九日은 大阪頭의 觀艦式으로 大阪全取引所는休會이엇다 神戶期米市場도 觀艦式으로二十九日前後場共히休會이다

△堂島情報

【大阪電話】商休中의 堂島市場은 昨日納會한十月限渡米調達難으로보아 그보담도二百丁이나下廻에잇는中限에 當米가잇슬理由 고 來月初旬의 買上으로 玉整理의 途上에잇서서 氣配는 九圓十七、八錢의 小强唱이엇다

十九萬圓流入
九月外國에서

全朝鮮郵便局所에서 九月中에 取扱한 外國爲替의 振出口數는 五百十二口 其金額二萬四千七百九十六圓이고 또 外國으로부터 朝鮮에온 口數는 九千八十八口 金額二十一萬四千九百五圓으로差十九萬百九圓이 外國으로부터 朝鮮에 流入한 計算으로되어잇다 그리고 이를前年同月中에 比하면 朝鮮振出에잇서서 約三割外國振出에잇서서 六割五分가 增加하엿다

金組貸出限度 擴充은必然的

金融組合의 貸出限度擴充은 이미 必然的이라고 大體 豫測하고잇서 各道로부터 數年前부터 要望하야 理財課當局에서도 研究를 進行中인데 問題는 다만 이外의 金融機關에의 影響의 一點인데 財務局에서는 이點에 關하야 가장 愼重히 實狀調查를 行하고 잇다 그리고 災害地에對한 貸出擴充은 昭和八年의 水害同樣으로 信用一千圓 擔保二千圓의 融通을 하기로되엇다

一、組合의 經濟向上에 伴하는 資力充實

一、地方經濟의 膨脹에 伴하는 取引單位擴大

一、地價、農產物價의昂騰等으로 大體 限度擴充은 必

重要商品界事情
人織反省時代

濠洲問題를 契機로하야 스테ー플파이버ー는 羊毛의 代用品으로서의 價值를 重視하야 官民이 파이버ー의 生產에 傾注하고잇는바 濠洲問題가 이러난지 半歲인 今日에 스테ー플파이버ー는 아직 羊毛의 代用品에 達하지못하고 最近은 市價도 一圓當五十圓가지하되 때문에 간신히 低落을示하기 始한 絹絲中絲와 競爭하는 立場에스게되엇는데 不過하며 同織維는 重大한 反省時代에 드러가잇다고볼수잇다。

×

現在 六月頃의 豫想으로는 九月末生產能力은 日產百噸、年末百卅噸에 及하고 各社의 公稱能力은 年內百五十噸이라 하든데 今日에잇서서는 겨우 七十噸에不過하다 年末百噸은 全혀 希望이적고 이와同時에 紡績各社의스테ー플 案에 絲紡續轉換은今夏의 豫想年內三十萬錘가되리라하든것이 二十五萬錘程度로 減少하게되엇다。

×

이러케 不振狀態에빠진 原因은 機械製作技術을 비롯하야 여러가지 技術上의 難點이 主要한것이다。

一、스테ー플파이버ー界에 잇서서 日本新과如한은 紡機製造會社로부터 購入한 設備를 多年에 亘하야 全혀 原型을버서나게 改良을 加하야 優良品을 엇게되엇스며 其他 新設會社 特히 人絹會社에서 스테ー플로 轉換한것은 大部分繊維의 切斷과 整一에 難點이잇다

一、日本은 獨逸等에 比하야 强度가弱하고 獨逸의平均二、八瓦에 對하야 二、五瓦이다

一、今夏모스린界를 風靡하던 스테ー플單獨織의 新興모스는 今秋에는 모스린의 五割을占하리라고 豫想되든것이 强度、耐水等에 弱點을 暴露하야 모스리界로부터 追放되야 在荷가山積하여잇스며 다음에 着手된 사ー지類도 成績이 不良하다。

經濟界消息

○遞信分掌局長會議=遞信局에서는 來二十九日三十日의 兩日 同局分館에서 遞信分掌局長會議를 開催한다는바 事情에 依하야 十一月五、六日의兩日에開催하기로 變更되엇다고

○商議交通部會=京城商議에서는 三十一日午後二時부터 交通部會를 開하고 左의議案을 附議하리라고

一、京城近郊經濟道路視察件

二、京城府新編入區域의 道路와 通信機關改善에關한件

○三菱商事石油特約店決定=三菱京城支店에서는 顏石의開業과 同時에 從來의 特約店이 全部 顏石의 特約店으로 轉向하여가때문에 其後 新特約店을 物色하야 新販賣方針의確立을 準備中이던바 마츰내京城의 東光商事及 群山의小松商店을 兩地方의 販賣店으로 選定하고 其他도 近近各各決定하야 積極的으로 販賣를開始하기로되엇다

○貨物輸送協議會=大型連絡에 件한 貨物輸送事務協議會는來

取引停止 (十月二十六日) 京城

府漢江通 一番地西澤善吉 (十月二十四日)▲京城府本町四丁目六番地遊覧商店西尾啟造

今日財界 (廿九日)

◆米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京城正米 ◆市中金融 ◆綿 東新 日產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綿糸

商況 【廿九日】

株式 續騰後에一息

前場續高

午前場에는 東新百四十圓九十錢 日產八十四圓九十錢 大新七十二圓四十錢 朝取三十六圓八十錢에 寄付하엿는데 東新은逆日步에 買氣一層煽揚되어 新高價에로 新騰하야 東京新이 百四十二圓四十錢의 高價를보인後 百四十二圓七十錢으로 大引함에따라 百四十二圓六十錢에 大引하고 日產이八十五圓丁, 朝新이 三十六圓七十錢, 朝取八十九圓五十錢에 各各大引되엇다

後場保勢

後場은 東新百四十二圓五十錢 日產八十四圓七十錢으로 保合裡에 保勢商状으로 大引되엇다

新高價로買進

再昨後場의 東京東新이 高價大引으로 百四十一圓八十錢을보여 去月十八日의 高價 百四十一圓二十錢을 上廻하엿슴으로 昨前場에 當地도 百四十一圓七十錢의 高價를 보엿는데 今朝에는 新高價로 大引하게 되에따라當地는 逆日步도 加擴하야 百四十二圓七十錢의 新高價를 現出하게되엿다。이와가티 東新이亦是 確面으로는 一抹의不安을가지면서도 弱體裡에 漸進되고잇는것은 注目을 要할바이니 國內의 諸問題는 姑捨하더라도 國際產銅協定委員會의 銅生產 一割減產決定으로 獨擧畫처를活躍트 日產系諸株가 亦是頭重裡에 小池狀態를 보하게되엇스며 또 米國의株界는 랠드氏優勢와 歐洲不安으로 스틸株는 連日墜落되고잇는것가튼 狀態이라 警戒는되면서도 商品界에잇서서 生絲는依然强硬하고 綿絲도意外로 好調이며 더욱이나 歐洲政局의 緊迫과함께 蘇聯의歐洲에 注意를集中하야 日蘇關係의 危機가 一掃되고 더욱이나 伊太利는 對蘇關係로 人絹을東洋市場에 덤핑할수업슬뿐外라 風雲이急하게되면 工場은全部 軍需工場化할것으로豫想되어 綿絲는 强硬한步調를보이고 人絹株 紡績株等은 諸原料의好調에 東新을 買付할 理由가보이지안흐므로 警戒裡에 鋭重하기는하면서도 强硬裡에 漸進되고잇는것인데 이强硬性이 오히려 市勢의 將來를 더크게할것이아닌가하는 商議도 不無하다。그래서 이警戒不足的態度가 繼續되고잇는限 危險性이적으므로 마바라의 熱狂的飛付까지는 買進할妙味가잇슬것이란 觀測도잇다。果如何?

實物前場取引

▲라사工業 ▲朝鮮製鍊 ▲富士木材 ▲全鮮釀業新 ▲櫻田機械 ▲人造洋毛 ▲朝鮮米穀 ▲同新 ▲朝日釀業 ▲大同產業 ▲東亞土木 ▲關東重工業 ▲라사工業新 ▲秋田木材新

取引高三八〇枚

六感

株……東新이百四十二圓七十錢의 新高價를보이고보니 鄙線家는 第一目標百四十六圓必至을豪語하는이도잇서서 軟派의肝膽이서늘한셈 ▲그러나大市勢는大市勢고 마바라가總飛付할때에는 市勢의後退期인것을勿忘하자 ▲環境이好調이므로 曝鍵한步調인때까지는 買進도無關하겟지 ▲日產이너무도오래保合을繼續한다 이번은日產活躍차례가 아닐가?

米……當限은二十九圓臺를內迫하고잇다 境遇에依하야는二十九圓三、四十錢臺의 納會를 豫하지안흘가한 商談도 不無派의去月의 受米五千石이 이번當限의 渡米化하기가 十常八九라고 ▲그쌀이나오는때는 渡米難의反撥이업을뜻한데 當限의形勢는 去益强化 ▲當限의率制이지는몸이나 中限도한 逐次昂騰此의 原因으로부터 엇? ▲政府의新米政策이果何如할지 大體米價政策이란 信念을어짐진買方針을 贊成하는 光景

期米 期近中心奔騰

前場續騰

昨後場阪地二十七圓○七錢 ……

後場暴騰

……

臨迫한當限戰
形勢依然頑強

……

東京國債市況

……

中限도亦頑強
當限의牽制?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各地正米

京城上放

仁川堅調

釜山續伸

大邱強調

群山續騰

木浦少高

米 株 仁川 東益商店 光皿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株式 期米 玉 京城本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金 銀 金土石 分析賣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五九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日魯、日鑛株前途

東新의 硬化를動機지은 日魯와 日鑛을 一瞥하면 日魯는 七十三圓臺의 高價를보엿는데 이는積